

NEWS

한일경제협회 소식

■ CONTENTS

한일경제협회 소식 제31호

발행인 | 김 윤
 편집위원장 | 이종운
 편집위원 | 조덕모·김정호·홍소영
 간사 | 서광현·이유정
 발행 | 사단법인 한일경제협회
 서울시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18-4
 한일재단빌딩 4F
 TEL/ 02-3014-9888
 FAX/ 02-3014-9899
 인쇄인 | 윤종우
 인쇄 | 웃고문화사
 서울시 중구 필동 23-1
 TEL/ 02-2267-3956
 FAX/ 02-2268-2361

2015년도 협회사업 안내

-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1
- 2015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4회 정기총회 2
-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3
- ※ 2015년도 한일경제협회 주요 사업 계획(안)

2014년도 협회활동 개최실적 (하반기)

-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4
- 제1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6
-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9
-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11
-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13
- (자동차부품산업)
- 주한일본대사·협회 회장단 간담회 15
- (사)한일경제협회&서울재팬클럽(SJC) 임원단 교류간담회 16
- 2014년도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18

일본 주요 산업별 시장 동향

- 석유화학 19
- 전자부품 25
- 차세대자동차 19
- 탄소섬유
- 철강

기획기사

- 일본 제조업의 전력수요 억제요인 35
- 일본기업의 저가 스마트폰 개발동향 38
- 일본의 주요 FTA정책 추진상황과 과제

일본경제동향 (2014년 11월)

41

한일 교역·인적교류 현황 통계

58

회원가입 안내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내

－ 김 윤 (주)삼양홀딩스 회장, 한일경제협회 제12대 회장으로 취임 －

韓日 양국 경제계를 대표하는 기업·단체의 최고 경영자 300여명이 매년 정례적으로 만나 양국 기업인 간의 교류를 증진하고, 한일 간의 경제현안 사항에 대한 진솔한 논의를 통해 양국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오고 있는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가 오는 2015년 5월 13일(수)~14일(목)까지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됩니다.

최근의 세계경제는 구미(歐美) 주도형 세계경제질서에서 동아시아 시대로의 구조개편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각국이 제후한 역내 경제통합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한일 양국 주도에 의한 동아시아경제공동체의 실현이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은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하는 뜻 깊은 해로서 본 회의에서는 향후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가기 위한 한일 양국 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

계의 상호이해와 친선을 증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과 동반성장을 위한 경제협력의 네트워크를 조성해 가고자 합니다.

1969년 이래 제47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을 위한 한일 양국의 협력 방안과 핵심과제 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하오니 경제계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개최(안)

기간 : 2015년 5월 13일(수) ~ 14일(목) ※ 5.12 일본 대표단 정부부처 예방

장소 : 서울 롯데호텔

테마 :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 세션1 : 새로운 50년을 향한 동반성장의 길
- 세션2 : LOOK KOREA(한국에서 배우다), LOOK JAPAN(일본에서 배우다)

규모 : 한일 양국 기업(단체)의 최고경영자 및 임원 300여명

주최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협력 : 산업통상자원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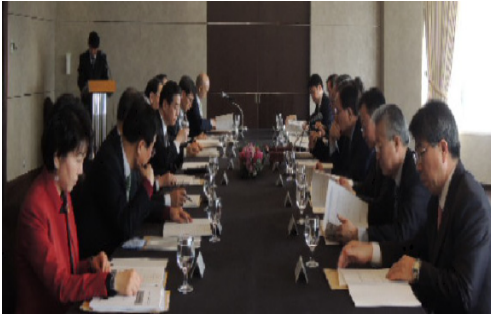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연구원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2015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 제34회 정기총회 개최안내

	회장단회의(이사회)	제34회 정기총회
일 시	2015년 2월 27일(금) 10:30~11:20	2015년 2월 27일(금) 11:30~13:00
장 소	서울 롯데호텔, 36층 아스토스 스위트	서울 롯데호텔, 2층 에메랄드룸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2014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 2014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수지결산(안)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2015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 제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제4호 의안 : 임원선임(안) 승인의 건
※ 문의 : 서광현 연구원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2014년도 회장단회의(이사회)



제33회 정기총회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안내

우리협회와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일한경제 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가 2015년 3월 18일(수)~19일(목)까지 이틀간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다.

한일신산업무역회의는 한일경제인회의 산하 전문위원회로서, 한일 간 산업·무역·

투자 등 공통의 과제에 대한 실천적 문제 해결형 회의로, 한일경제인회의를 통해 양국 정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정책 제언 및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본 회의는 '99년 10월 제1회 회의 개최 이후, 이번에 16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개최 ■	
일 시	2015년 3월 18일(수) ~ 19일(목)
장 소	서울 롯데호텔
주 최	한국측 - (사)한일경제협회, 한국무역협회 일본측 - (사)일한경제협회
규 모	한일 양국 체어맨, 코디네이터 및 위원 등 60여명
미 셴	1. 한일간의 무역확대 2. 한일간의 투자확대 3. 한일간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4. 한일산업경쟁력강화 프로젝트

주요일정(안)

날짜	주요 활동 사항
3/18(수)	18:30~20:00 리셉션(한일 양측 참가 위원 교류 간담회)
3/19(목)	09:30~10:10 개회 10:10~10:50 세션 1 : 동반성장을 위한 한일 정책공조 (금융·환율 등) 10:50~11:30 세션 2 : 한일 하나의 시장화를 위한 협력방안 13:00~13:40 세션 3 : LOOK KOREA (한국에서 배운다), LOOK JAPAN (일본에서 배운다) 14:00~14:20 한일경제협력지수개발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 14:20~15:30 토론 및 폐회

※ 문의 : 김정호 부장 TEL : 02-3014-9877 / E-mail : jhkim@kje.or.kr
서광현 연구원 TEL : 02-3014-9886 / E-mail : khsuh@kje.or.kr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개최결과

— 2014년 7월 27일(일) ~ 31일(목), 일본 사이타마현 카와고에시 —



우리협회와 일한경제협회(회장 사사키 미키오/佐々木幹夫)가 공동 주최하는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가, 지난 7월 27일(일)~07월 31일(목) 일본 사이타마현 카와고에 프린스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캠프는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의 지원을 받아 한일 양국 고교생들이 참여하여 비즈니스를 기획하는 체험형 경제교육 방식으로 열렸다.

한일 양국 혼성 10개 팀으로 구성하여 4박 5일간 합숙하면서 실물경제를 직접 경험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의 산업·문화 등의 상품에 대한 비즈니스 기획, 사업투자금 피칭을 위한 사업부스를 구성하여 투자를 받는 경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학생 40개교 50명, 일본 학생 49개교 50명(*합계 양국 89개교 100명)이 참가한 이번 캠프의 사업 투자금 피칭에서는 ‘Somebody Help You’라는 사업 명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배려한 매표기계와 어플리케

이션에 대해 (헬프 티켓) 비즈니스를 기획한 2팀(VICTORY)이 최우수상을 수상하였다.

그리고, 여행코스를 일반유저 및 가이드가 업로드 하여 소개하는 어플리케이션(Pit-a-paTRIP)을 기획한 3팀이 창업진흥원장상을, 영화관, 아이 돌봄 센터, 문화센터가 공존하는 복합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기획한 8팀은 심사위원특별상을, 한일 관계의 만남, 유대, 인연, 연결고리, 우정 등을 스포츠를 통해 연결하는 사업을 기획한 10팀이 팀워크상을 수상하였다. 또한, 한 건물에 세계 각국의 문화와 의상 등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기획한 7팀은 인기상을 수상하였다. 



제21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프로그램						
시간	2014.7.27(일)	2014.7.28(월)	2014.7.29(화)	2014.7.30(수)	2014.7.31(목)	
07:00-08:00		휴식 및 준비	휴식 및 준비	휴식 및 준비	휴식 및 준비	
08:00-09:00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아침식사	
09:00-10:00	한국학생	일본 경제 현장 체험 & 점심(외식)	사업부스 설치 사전준비	사업부스 체험 및 투자금 피칭 (심사위원, 내빈, 스태프)	일본문화체험 (상점가 거리@ 고에도) 점심(외부)	
10:00-11:00	김포공항					
11:00-12:00	집결		점심식사		일본학생 현지 해산 한국학생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	
12:00-13:00	한국학생 출국		점심식사 [단체사진촬영] 투자금 집계			
13:00-14:00	김포공항 ➤하네다공항 JL092		사업부스 설치 PART 1	시상식 및 수료식		한국학생
14:00-15:00	(12:05-→14:15)			개별기념사진 촬영		출국 수속
15:00-16:00	일본학생집합 (15:30/@교육장)			친구에게 한마디! [KJSFF/ JKSFF소개]		한국학생 귀국 하네다공항➤ 김포공항 JL093 (15:35-→17:55)
16:00-17:00	한국학생 교육장 도착			사진 슬라이드쇼 [양케이트]		
17:00-18:00	오리엔테이션	간담회 (재일 한국 기업에 대해)	후원기관 간담회			
18:00-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Finale Festival		
19:00-20:00	친해지기 프로그램	사업안 결정	사업부스 설치 PART 2		양국전통놀이 한마당	
20:00-21:00	사업아이템 논의	도전! 골든벨!				
21:00-22:00	휴식 및 취침	휴식 및 취침	휴식 및 취침	휴식 및 취침		



한편, 제9회 한일학생미래회의가 8월 5일(화)~9일(토), 한국 대전에서 개최되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앞둔 한국과 일본의 미래’라는 테마로, 한일협력과 관련한 5개의 소테마 ‘문화, 한일 류, 저출산·고령화, 미디어, 교육’에 대해 4박 5일간 토론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일수교 50주년을 앞두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과거 50주년을 돌아보고 미래 50년을 그려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제1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4년 9월 17일(수)~19일(금),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



우리나라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울산·강원·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3縣 : 토야마·이시카와·후쿠이)지역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제15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지난 9월 17일(수)~19일(금), 일본 이시카와현 나나오시 아에노카제호텔에서 개최되었다.

본회의는 양국 파트너십 강화 및 산학기술 협력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지난 98년 10월 양국 정상합의로 2000년부터 일본 호쿠리쿠지역(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과 함께 개최하고 있는 회의이다. 2000년 7월 일본 토야마현에서 개최된 제1회 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열리고 있으며, 지금까지 양국간 교류는 15년간 2,457명(한국 993명, 일본 1,464명)이 참가해 지자체 MOU체결 및 192개의 경제협력 사업에 합의했고, 기업 간 377건 4천390만달러(*2012년 기준)의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하는 등 지역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해왔다.

이번회의에는 한일 양국 정부 대표로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이재근 과장 및

경산성 중부경제산업국 타카스기 히로야스(高木 博康) 지역경제부장을 비롯하여, 양측 7개 지방자치단체(대구, 울산, 강원, 경북, 이시카와현, 토야마현, 후쿠이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테크노벨리 재단, 한일경제협회 등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176명이 참가하였다.

한일 양국의 경제적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공동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한 이번 회의는 2개의 업종별 전문분과회(소셜 이노베이션을 통한 지방의 활성화, 의료융복합)로 나누어 개최하였으며, 유관기관 및 기업간 사전 매칭작업을 통해 개별미팅도 진행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의 주요 성과로는 고마츠정현의 한국 섬유기업 코오롱FM과 파트너십 체결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다.



이번 한일 지역 간 협업, 산업 간 융합으로 지역의 창조경제 실현과 경쟁관계에서 공동협력관계로 가는 유익한 회의가 되었으며, 지역 간 경제교류회의가 악화된 한일관계 속에서 양국 관계를 개선하고 양국 지역 간 경제교류를 촉진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수행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호쿠리쿠 지역경제는 일본 경제 전체에서 3% 전후를 차지하며 뉴질랜드, 헝가리, 베트남 지역에 필적하는 경제권으로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어 2015년 초 호쿠리쿠 신칸센 개통과 함께 도쿄 등 일본 시장 진출의 물류거점으로서 발전 가능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양국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관한 공동연구조사에서 제시된 산업협력 확대 방안을 토대로 구체

적인 액션플랜을 수립하여, 개최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회의가 되도록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2015년 제16회 차기 회의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에 열리는 만큼,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새로운 50년을 향해 동반성장·공동번영의 시대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한·일(호쿠리쿠)협력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고, 2015년 회의는 한국 울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요 성과 ◀

-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일 협력’을 테마로, ‘양국 지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경제 활성화의 정책공유·벤치마킹, 의료융복합산업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한일이 경쟁관계에서 공동 협력 관계로 가는 기반 구축(고마츠정련-코오롱FM)
- 동해안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서로 Win-Win하는 산업협력 확대방안 발굴, 한일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촉진
 -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파트너로서 공생공영(해외영업 협력)
 - 상담회·전시회·테크노페어 등 비즈니스교류협력, 대학간 연구협력 확대
 - 탄소섬유 클러스터 제휴, 티타늄부품의 의료기기산업 활용, 한방산업 제휴, 6차 산업화 협력, 지방의 인구감소 공동대처, 에너지 비축기지의 제휴 등

- 1) 한·일(호쿠리쿠) 관계기관·기업 간 네트워크 확대 및 산업협력 기반 구축 (개별미팅)
 - 경북의 (주)야생초(저염 유산균발효 김치)와 일본 도야마현 고칸도(제약업체)간 아시아 시장확대와 공동진출 협력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강원도·강원무역창업연구원, 대구테크노파크 등 3개 기관 상담실시, 호쿠리쿠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2) 산업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홍보 및 동해안 4개지역의 정책·투자 인센티브 소개를 통한 대한투자 분위기 조성
 - KOTRA와 홋코쿠(北國)은행 거래기업과의 한국 투자기업 유치 상담
 - 대구·울산·강원·경북의 지자체별 현황과 주력산업분야, 투자인센티브 소개
 - 호쿠리쿠 3현(도야마·이시카와·후쿠이)의 대한투자실적 : 27건 3.4% / 788건
 - * 대일무역적자는 2011년 이후 3년 연속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올해 들어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고 대한투자도 크게 줄어들고 있음
 - * 대일무역적자 : '11년 75억불 개선→ '12년 31억불 개선→ '13년 2억불 개선
→ '14년 7월 35억불개선(수출입 모두 감소)

- 2014. 7월까지 수출 $\Delta 3.8\%$ 감소(199억불→192억불), 수입 $\Delta 11.8\%$ 감소 (356억불→314억불)
 * 대한투자 : '11년 22.9억불→ '12년 45.4억불 (160.9% $\uparrow$)→ '13년 26.9억불 ($\Delta 40.8\%$ $\downarrow$)
 → '14.상반기 11.5억불 ($\Delta 15.2\%$ $\downarrow$)

3) 일본 호쿠리쿠 지역의 지역경제산업 활성화 정책 정보 입수 및 우리나라 지역경제 발전에 벤치마킹

- 섬유공업에서 생산용 기계, 전자부품·디바이스 산업으로의 산업재편
- 호쿠리쿠 산업경쟁력 강화 전략으로 라이프 사이언스, 고기능 신소재 관련 산업의 집적지로 육성, 남북관광루트의 적극적인 홍보로 해외 관광객 유치
- 고령화·지방도시 인구감소에 대처(콤팩트 시티 추진, 인구감소대책본부설치, 농업에 건설기계(불도저) 활용 등)
- ‘초절전 에너지절약·생산성 향상 공장’으로서, 해외에 나가지 않고서도 국제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사례
 * 코마츠 아와츠 공장 : 에너지 구매율을 90% 절감시키는 데에 성공한 호쿠리쿠지역 소재 글로벌 중장비기업(Top down 방식 냉방→Bottom up 방식의 냉방으로 교체)

4) 동해안 4개지역과 호쿠리쿠 3현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확대방안에 대한 공동연구조사’를 토대로 일본 호쿠리쿠 지역과의 Win-Win하는 산업협력 확대방안을 발굴

- 서로의 강점과 약점을 보완하여 파트너로서 공생공영(해외영업 협력)
- 상담회·전시회·테크노페어 등 비즈니스교류협력, 대학간 연구협력 확대,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기업·연구자·전문가 DB 구축)
- 우리측 각시도별 산업차원 경제협력 니즈
 - (1) 대구광역시 : 자동차, 로봇, 소프트웨어, 에너지, 섬유, 의료기기, 안경산업, 물산업 클러스터 협력
 - (2) 울산광역시 : 자동차, 화학, 조선관련 산업
 - (3) 강원도 : 바이오, 의료기기, 신소재
 - (4) 경상북도 : 전자, 원자력, 에너지, 바이오, 항공전자
- 일본측 경제협력 니즈
 - (1)탄소섬유 클러스터 제휴, (2)티탄부품의 의료기기산업 활용, (3)한방산업제휴, (4)6차 산업화 협력, (7)지방의 인구감소 공동대처, (8)에너지 비축기지의 제휴

5) 이시카와현 지사 면담을 통해 양 지역 간 산업별 교류 증진에 대해 인식을 공유

- 이시카와현의 차세대 신성장산업인 탄소섬유를 비롯하여, 건강산업(기능성 식품) 등 분야의 산업협력 확대를 추진
- 가나자와항과 부산항을 이용한 양국의 물류교류 확대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4년 11월 25일(화) ~ 28일(금),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 한·일(큐슈) 경제교류회의는 '93년 11월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양국 지역간 산업협력 발판을 마련
- 21년간 한국 1,032명, 일본 1,357명 합계 2,389명이 참가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와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지난 11월 25일(화)부터 11월 28일(금) 4일동안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동시 개최되었다.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한국측에서는 이상진(李相珍)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등 60명, 일본측에서는 키시모토 요시오(岸本 吉生) 큐슈경제산업국국장 등 36명이 참가하였다. (전체 합 96명)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제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한·일(큐슈)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각각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기술·인재 등의 지역 자원을 상호 보완함으로써, 무역·투자·산업기술의 교류 확대와 지역간 교류 촉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본회의 개최 인사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이상진 통상협력

국장과 큐슈경제산업국의 이시마루 아키라(石丸 晃) 산업국장의 인사말씀이 있었다. 기조강연에서는 (사)한일경제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의 '한일경제 관련 Win-Win 전략'과 큐슈경제연합회 미야와키 마사토시(宮脇 雅俊) 부회장의 '큐슈 오키나와 EARTH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본회의 세션1에서는 동의대학교 이홍배 교수와 큐슈 일한경제교류회 시노하라 오사무(篠原 統) 이사장, 세션2에서는 히라도시 구로다 나루히코(黒田 成彦) 시장이 강연하였고, 세션3에서는 대구 경북첨단의료 산업진흥재단 손정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 센터 팀장과 부산광역시 경제정책과 정광훈 계장의 지역클러스터를 소개 하였다.



또한 '향후 회의 발전방향에 대한 자유토론'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큐슈) 지역과의 협력, 자동차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남권·큐슈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

서의 협력방안이 모색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경제협회와 큐슈경제연합회 공동으로 큐슈일한경제교류회 등의 협력을 얻어 민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여 전기전자·기계 등 전산업분야의 한·일(큐슈)간 비즈니스 교류 촉진하였다. 아울러 우리 협회와 동남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한일중소기업경제교류회)가 공동으로 큐슈경제연합회·큐슈일한경제교류회 합동 민간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 총 120건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통해 1,383만 달러의 상담 실적을 거두어 한·일(큐슈)간 비즈니스 교류를 촉진하는 가교 역할을 하였다.

본 회의는 1993년 첫 회의 이후 양국의 입장과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제21회 회의를 전환점으로 하여, 기존의 사업제안·합

의형식의 회의에서 대국적인 메시지의 발신과 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종별 네트워크 구축 회의로 변화되었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5년 제22회 2015년 제22회 차기 회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제언된 산업별 교류 방향에 의거하여 향후의 주요 논의 테마(신재생에너지, 환경, 수송기계, 일반기계, 관광, 의료·요양(개호) 분야 등)를 설정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요성과 ◀

- 큐슈지역의 대표적인 경제단체인 큐슈경제연합회와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기전자·기계 등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큐슈진출의 기반을 구축
 - 한국 45개사, 일본 24개사 총 120건 상담실시(상담금액 \$1,383萬)
 - 한·일(큐슈)회의의 병행사업으로 실시해 오던 상담회를 한·일(큐슈)회의 본사업의 하나의 테마에 따라 세트형으로 개최함으로써 지속적인 비즈니스 찬스의 기회를 마련
- 실질적인 한·일(큐슈) 경제협력 증진을 위한 제안
 -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 관심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별 산업클러스터 계획홍보
 - * 코리아 트래블 신문(5만부)을 통해 동해안 경제자유구역 등 PR
 - 하나의 경제권 형성을 통한 한일 경제관계의 윈윈방안 제시 및 기술과 비즈니스 융합의 산업간 경제협력 발전방안 제안
- 한국측 45개사, 일본측 24개사 기업이 매칭, 총 120건의 상담이 성사 되었으며 총 상담금액은 \$13,830,000, 이 중 성약가능 추정금액은 \$4,616,000으로 집계됨
 - 품목별로 살펴보면 수처리시설 및 태양광, LED조명 등 그린에너지·환경분야의 상담이 약 \$1,200만의 상담실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ANT21사와 NEOS사의 경우, 상담 중에 일본측 기업으로부터 각각 \$4,000과 \$2,000의 샘플오더를 받음
- 한국측 37개사 중 향후 견적의뢰 예정 및 상호방문 예정인 기업은 15개사로, 참가기업 중 약 40%의 기업이 효과적인 상담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됨
 - 견적의뢰 기업 : ANT21, LMAT, YB해운항공, 기원코퍼레이션, 네오스, 대건테크, 메카스, 미래엔지니어링, 솔라라이트, 유캔바이더월드
 - 향후 상호방문 예정 기업 : ANT21, 삼익테크, 미래엔지니어링, 코스텀, 쿨링시스템
- 상담회 설문조사 결과 67%의 참가자가 상담결과에 만족하였으며 상담회 준비 및 사전 어레인지와 관련해서도 각각 67%씩의 만족도를 보임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개최결과

— 2014년 11월 25일(화) ~ 28일(금),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



▶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 '01년 제1회 회의 이후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면서, 환황해권 경제기술협력 강화의 발판을 마련
- 13년간 한국 1,302명, 일본 1,879명, 중국 1,600 합계 4,781명이 참가

제13회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와 제21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는 지난 11월 25일(화)~11월 28일(금) 4일동안 일본 나가사키현 사세보시에서 동시 개최되었다. 환황해·경제기술교류회의는 한국측에서 주일본대 한민국대사관 강명수(姜明秀)상무관 등 78명, 일본측에서는 큐슈경제연합회 아소유타카(麻生 泰) 회장 등 86명, 그리고 중국측에서는 아주사상무부 송 야오밍(宋 耀明) 부시장 등 94명이 참가하였다. (전체 합 438명, 본회의 258명)

한중일 3개국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및 대학·기업 등이 참가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환경·에너지·관광을 통한 환황해지역의 새로운 경제교류 모델 구축'이라는 주제하에 진행되었으며, 구체화를 위한 방책 등을 논의 하였다.

전체회의에서 협회 이종윤 상근부회장,

큐슈경제산업국 기시모토 요시오(岸本 吉生) 국장, 중국 상무부 아주사 송 야오밍(宋 耀明) 부시장의 각국 대표 인사가 하였다. 또, 한국측은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박상철 교수, 명지전문대학 이은일 교수, 일본측은 큐슈경제산업국 시바타 슌이치(柴田 俊一) 국제화조정기획관, (일사)큐슈관광추진기구 타카하시 마코토(高橋 誠) 사업본부장, 중국 측 제안으로는 산둥성 르자오시 류 시량(劉 西良) 부시장과 랴오닝성 다롄창싱다오 경제구 관리위원회 구 치양(顧 强) 부주임의 3국 협력제안 발표가 있었다.



연계 행사로 개최된 「환황해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환황해 지역에서 환경·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비즈니스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 산학관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심화를 위한 기초강연, 협력사례 소개 발표 및 각국 비즈니스 교류회가 개최되었다.

13회째를 맞이하는 금번 회의를 통해 한중일 삼국 간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산업

적으로 밀접해지는 상황 하에서 3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상호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환경·

에너지·관광분야에서의 산학관 협력과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하였으며, 2015년 회의는 한국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 주요성과 ◀

- 한중일 삼국 간 무역 의존도가 높아지고 산업적으로 밀접해지는 상황 하에서 3국의 성장잠재력을 높여 상호번영해 나가기 위해서는 환황해 지역의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환경·에너지·관광분야에서의 산학관 협력과 인재 육성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강화에 합의
 - 우리 청년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인력 일본기업 취업 지원 계획안을 홍보하고, 일본 큐슈글로벌산업인재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의 니즈에 맞는 글로벌 산업인재 매칭사업과 연계
- 금번 회의시 「한중일 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환경정비」, 「환황해 경제교류 대상의 창설」, 「한중일 화학 에너지·환경보호 분야의 협력」 등 한중일 지역교류 확대를 위한 3국 상호협력·제안사항으로서 총 6개의 협력사항을 제안

한일 업종별 네트워크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 (자동차부품산업)개최결과

- 2014년 9월 30일(화) ~ 10월 2일(목), 서울 롯데호텔 -



지난 9월 30일(화)~10월 2일(목), 3일 동안의 일정으로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일 업종별(자동차부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비즈니스 교류회’가 개최되었다.

본 교류회는 일본 완성차 업체인 미쓰비시 자동차 관계자를 초청한 구매 상담회 및 세미나개최를 통해 한일 양국 자동차부품 산업의 무역·투자·기술협력 등 관심 분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 관계자 25명 및 일본 일본미쓰비시자동차공업(주) 관계자 4명이 참가하였다.

미쓰비시자동차 구매총괄본부 관계자와의 1:1상담회에서는 일본측에서 사전에 요청한 상담품목을 대상으로 12건의 상담을 통해 한국산 부품의 일본 자동차 시장(미쓰비시 자동차) 진출의 계기 마련하였다.

또한, 미쓰비시자동차에서는 2015년에 부품의 30%를 해외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

을 세우고 그 절반을 한국기업에서 조달하기로 하였다. 2014년도 총 부품조달 예상금액은 약 99억엔이며, 한국 물류회사와 협력하여, 한국부품기업들이 개별 운송하던 것을 미쓰비시자동차가 모아서 수입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과 일본 간 무역·기술 협력에 공로가 큰 기업으로 미쓰비시자동차 공업(주)와 조일무역(주)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매년 정례화 하여 테마 별 자동차 부품구입을 실시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교류회 마지막날(10월 2일)에는 선일다이파스(주)와 대성전기(주) 등 국내 우수 자동차 부품 업체를 방문하여, 기업 소개 및 생산관련 시스템 견학 후 질의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번 산업시찰을 통하여 매년 2회 미쓰비시자동차와 대성전기 간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전장부품으로 품목확대를 추진하는 등의 긴밀한 협력관

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교류회에 참가한 미쓰비시 측과 한국 기업은 상담회를 통해 미쓰비시자동차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한국 자동차부품업체의 일본 수출확대에 기여하는 매우 유익한 상담회가 되었다는 의견이었다. 특히, 국내 및 해외 자동차 메이커 등과 거래 실적 및 대일 수출실적이 있는 국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참가 업체를 선발(12개사)하여, 상담회를 개최한 결과 일본측의 만족과 함께 한국측 참가기업의 만족도(75%)도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우수 자동차부품업체를 방문, 생산관련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간담회를 통해 우리 자동차부품 업체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주요성과 ◀

- 미쓰비시자동차 구매총괄본부 관계자와의 1:1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일본측에서 사전요청한 상담품목을 대상으로 12건의 상담을 통해 한국산 부품의 일본 자동차 시장(미쓰비시자동차) 진출의 계기 마련
- 미쓰비시자동차에서는 2015년에 부품의 30%를 해외로부터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그 절반을 한국기업에서 조달하기로 함
 - 2014년도 총 부품조달 예상금액 : 약 99억엔
 - 한국 물류회사와 협력하여, 한국부품기업들이 개별운송하던 것을 미쓰비시 자동차가 모아서 수입함으로써 물류비용 절감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과의 비즈니스 상담을 매년 정례화하여 테마별 자동차 부품구입을 실시
 - 한국과 일본 간 무역·기술 협력에 공로가 큰 기업으로 미쓰비시자동차 공업(주), 조일무역(주)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여

주한일본대사 주최 만찬 간담회 개최결과

- 2014년 11월 14일(금), 서울 웨스튼조선호텔 -

우리협회 회장단과 주한일본대사관과의 정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주한일본대사 초청 간담회가 지난 11월 14일(금) 웨스튼조선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김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주)삼양홀딩스 회장)을 비롯하여 박인구 부회장(동원그룹 부회장), 송치호 부회장(LG상사(주) 대표이사), 문규영 상임이사(아주그룹 회장), 이일규 상임이사(Best Western Korea 회장), 이수철 상임이사((주) MK Korea 회장), 이영관 상임이사(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 이종윤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이 등 12명이 참석하였고, 주한일본대사관측에서는 벳쇼 고로(別所 浩郎) 대사를 비롯한 소마 히로히사(相馬 弘尙) 경제공사, 코바야시 켄이치(小林 賢一) 정치공사, 사사야마 타쿠야(佐々山 拓也)총무공사, 사토 마사루(佐藤 勝)공보문화원장 등 5명이 참석하여 한일 양국 간의 협력 분위기 조성 및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의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김 윤 (사)한일경제협회 회장은 내년 한일수교 50년을 앞두고 협회에서는 어떤 기념행사를 할지 생각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벳쇼 대사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어 경제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한일 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한다고 요망하였고, 벳쇼 대사는 힘을 합쳐 한일관계를 본래의 좋았던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 힘써 나가고자 하니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박인구 동원그룹 부회장은 한일로서 양국이 있다면 하루빨리 풀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해 나가야 하는데, 한일수교 50년을 앞두고 경제인들이 나서서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일 FTA를 넘어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구축한다면 미국이나 EU보다 더욱 강력한 경제구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평창동계올림픽·도쿄올림픽, 및 한일 양국 문화교류 등에 대해서도 의견교환의 시간을 가졌다. 



(사)한일경제협회&SJC 임원단 교류간담회 개최결과

— 2014년 11월 7일(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



지난 11월 7일(금),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사)한일경제협회 & SJC(서울재팬클럽) 교류간담회가 공동으로 개최되었다. 본 간담회는 (사)한일경제협회와 SJC(서울재팬클럽)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정보교환 및 양국간 경제협력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한일관계 개선 및 경제교류 활성화 등에 대한 의견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 협회 회장단에서는 이영관 상임이사(도레이첨단소재(주) 회장)를 비롯하여 이일규 상임이사(베스트웨스턴코리아 회장), 이수철 상임이사((주)엠케이코리아), 박남숙 감사(교세이국제특허정보(주) 대표), 이승호 감사(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종운 (사)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 등 15명이 참석하였고, SJC(서울재팬클럽)측에서는 이시야마 히로츠구(石山 博嗣) 이사장, 호쥔 히로후미(北條 洋史) 부이사장, 미키 아츠유키(三木 篤行) 부이사장, 와카시마 히로시(若島 浩) 부이사장, 우에노 야스아키(上野 靖明) 부이사

장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협회측 대표인사로 이종운 한일경제협회 상근부회장은 최근 한일관계가 냉각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경제인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를 제안 하였으며, 유럽은 EU, 북미는 NAFTA라는 공동체를 통해 좋은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 반해, 동아시아는 구축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는 한일 양국이 아시아의 축이 되어 동아시아경제공동체 등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였다.



또한, 내년은 한일수교 50년을 맞이하는 해로 정치상황과는 별개로 경제적인 면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오늘 모임을 통해 서로 친목을 다짐과 동시에, (사)한일경제협회와 SJC(서울재팬클럽)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SJC측 대표인사로 이시야마 히로츠

구(石山 博嗣) 이사장은 한일관계는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양국은 서로에게 있어 무역규모는 제3위, 투자규모 면에서는 제2위의 국가라고 하였고, 최근 제3국에서는 인도네시아 LNG사업과 같이 한일 양국 기업이 상호간의 강점을 활용하여 공동으로 진출하는 케이스도 증가하고 있다고 하였다. 내년은 한일수교 50년을 맞이하는 해로 한국에 진출해 있는 일본계 기업들은 한국에서 일함과 동시에 한국사회의 발전 및 양국의 관계개선에 기여해야 하며,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SJC기업에 한국학생을 초청하는 등, 양국 청소년의 기업현장에 대한 이해 및 인턴십 수용에 힘쓰고자 생각하고 있고, 양국의 학생과 기업이 함께 교류한다면 가일층 심화된 교류가 가능할 것이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일관계가 개선되고 더 많

은 협력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였다.



금번 간담회를 통해 내년 한일수교 50년을 맞아 강화해 나갈 사업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는 의견이었으며, (사)한일경제협회와 SJC협력하여 더욱 긴밀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2014년도 한일·일한경제협회 정례업무협의 개최결과

- 2014년 12월 11일(금), 서울 -



우리 협회는 일본측 카운터 파트너인 일한경제협회와의 2014년도 정례업무협의를 12월 11일(목) 한국에서 개최하였다. 한국측은 이종윤 상근부회장 등 7명이, 일본측은 고레나가 가즈오(是永 和夫) 전무이사 등 4명이 참석하였다.

양국 협회는 한일 양국은 인적자원 외의

자원은 매우 부족한 국가이므로 대외적 활동을 통해 살아 나야가야 하며 어려운 문제를 협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입장을 공감하고, 사람·상품·자본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하나의 경제권’을 구축해 나가는데 있어 더욱 힘쓰기로 하였다. 또한 2015년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인 향후 50년을 위해 양국간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협회 금년도 사업에 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인 제47회 한일경제인회의, 한일경제인 마라톤대회, 한일 대학생 대토론회, 제16회 한일신산업무역회의, 제22회 한일고교생교류캠프, 등 주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협의를 마쳤다. 

석유화학시장

< 포인트 >

-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고비용 체질과 구조적 문제로 차츰 대외경쟁력이 낮아지면서 생산규모 축소 등 업계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각 기업은 새로운 탈출구 모색을 위한 생산설비의 효율적 재활용을 포함한 적극적인 생존전략을 구축하고 있음
- 일본 석유화학시장으로 유입되는 외국산 제품이 늘어나고 있어 한국기업들도 일본 현지 유통망 구축을 통한 시장 공략을 적극적인 추진할 필요가 있음

1. 업계 최근 동향

1) 점차 경쟁력을 상실해가는 일본의 석유화학

- 에틸렌은 플라스틱(합성수지)과 고무, 합섬원료, 도료원료, 합성세제 등 석유화학제품의 근본이 되는 원료이며, 일본에서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나프타(naphtha)를 이용하여 만들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은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의류, 일용잡화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에 활용되고 있음
-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 중에 나무 혹은 가죽처럼 보이는 소재도 사실은 석유화학제품인 경우가 많음
- 전자부품과 자동차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로 쓰이는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의 대부분은 나프타인 경우가 많음
- 일본의 화학산업은 출하액 40조 엔으로 자동차에 이어 2위, 종업원 수는 88만명으로 일본 국내 제조업에서 3위(2010년,

경제산업성 통계)에 해당

- 이 중 석유화학분야는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임
- 특히 에틸렌의 수요는 오랫동안 연간 500만 톤 전후에 머물러 있으나, 국내 생산능력은 약760만 톤에 달하고 있음
- 따라서 국내에서 소화하고 남는 잉여부분은 그 동안 수출로 돌려 채산성을 유지해 왔으나, 최대 수요 국가였던 중국의 낮은 경제성장 때문에 균형이 깨진 상태임
-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이 안고 있는 고비용 체질과 같은 구조적 문제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임
- 최근 천연가스를 원료로 하는 저렴한 에틸렌에 강점을 가진 중동 국가들과 최대 수요처인 중국에서 연간 100만톤급 대형 플랜트의 신설 및 증설이 이어지고 있는 점도 일본 석유화학산업에게는 위협이 되고 있음
- 나프타를 원료로 하는 일본의 석유화학

- 산업은 중동 국가에 비해 비용 격차가 20~30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일본의 석유화학제품은 수출지역이었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밀리고, 오히려 중동과 중국의 저렴한 수입제품이 일본국내로 유입되고 있음
- 그리고 일본 석유화학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미국의 이른바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할 수 있음
- 혈암(頁巖)에서 추출하는 천연가스와 오일의 개발이 진행되면서 이것을 원료로 한 대형 에틸렌 플랜트가 2016~2017년에 연이어 가동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 계획대로 진행되면 미국은 이 플랜트만으로도 연간 에틸렌 생산능력 760만 톤의 일본에 버금가는 생산규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됨
- 일본 석유화학산업을 몇 년 안에 중동, 중국, 미국 등과 치열한 시장경쟁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비용측면의 경쟁력을 생각하면 단순한 범용제품에서는 일본의 우위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차 일본의 국제경쟁력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 ## 2) 콤비나트의 변신
- 이러한 국제경쟁력 저하를 배경으로 미쓰비시케미칼홀딩스 산하의 미쓰비시화학은 2014년 5월 가지마(鹿島)사업소의 에틸렌 생산설비 2기 중 하나를 정지한다고 발표했음
- 일본 석유화학 업계는 독자적으로 진화한 전형적인 콤비나트(Kombinat, 러시아어로 상호관련성이 있는 여러 기업을 묶어서 하나의 공업지대를 이루어 생산능률을 높이는 것)의 사업형태를 보이고 있음
 - 콤비나트에서 분해한 나프타에서 에틸렌 이외에 프로필렌, 주로 고무 원료 등을 추출함
 - 이들 원료를 이용하여 합성수지와 섬유, 고무 등의 유도(誘導)제품을 만들어내게 됨
 - 나프타의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동으로부터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일본의 콤비나트는 거의 태평양 연안에 위치해 있음
 - 석유정제와 화학회사 등 콤비나트를 형성하는 공장은 서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되어 자동으로 원료를 유통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 있음
 - 이렇듯 한 곳에서 다양한 유도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입지 우위성이 일본 화학산업 발전을 지탱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반면에 하나의 원료 생산이 중단되면 예상치 못했던 곳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라는 단점도 있음
 - 일본 전체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연간 약 760만 톤에 이르며, 최근 몇 년 사이 100만 톤 정도의 공급과잉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계 구조조정이 이

루어지지 못했던 이유로는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 수가 많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콤비나트의 특성이 그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

- 최근 스미토모화학(住友化學)이 2015년에 치바(千葉)에서, 아사히가세이(旭化成)가 2016년에 미즈시마(水島)에서 각각 에틸렌 생산설비를 하나씩 줄이기로 결정
- 그러나 이렇게 결정하는 데 두 회사 모두 무려 3년여의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내외 설득은 물론이고 수면 밑에서 얼마나 어려운 작업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음

□ 그러나 일본 석유화학 업계의 이러한 구조개혁만으로는 현존하는 문제가 말끔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 특히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콤비나트의 경우, 일반 산업과 주택용으로 용지를 매각하는 것이 어려움
- 그렇다고 해서 공터로 방치하는 것도 경제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유력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수 있음
-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사히가세이(旭化成)의 미즈시마(水島) 콤비나트임

□ 세일가스로는 만들지 못하는 것을 만들면 경쟁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설비, 인프라가 정비되어 있는 미즈시마(水島)는 절호의 입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 아사히가세이(旭化成)가 미즈시마(水島)에서 추진하려는 것은 타이어 등의 합성고무 원료인 부타디엔(butadiene)을 생산하는 신기술의 사업화임
- 미국에서 앞으로 채굴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 셰일가스로는 통상적으로 부타디엔은 추출할 수 없음
- 그렇기 때문에 셰일가스 공급이 본격화되면 타이어 원료가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타이어는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전체에서 연간 3~5%의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로 앞으로 비즈니스 기회는 얼마든지 확대될 공산이 크기 때문임

□ 아사히가세이(旭化成)는 나프타에서 부타디엔을 빼낸 후에 남는 부텐(butene)에서 부타디엔을 생산하는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음

- 미즈시마(水島)에 연간 수만 톤의 부타디엔을 만드는 실증설비를 갖추고 2014년 안에 다음 단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의사결정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 천연가스에서 나오는 에탄에서 에틸렌과 프로필렌을 추출하는 기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술을 조합하면 앞으로 셰일가스에서 타이어원료를 만드는 것도 가능해 질 것으로 보임

3) 일본 석유화학의 미래

- 최근 일본업체는 물론 세계 여러 나라의 관련 기업들로부터 일본의 호쿠리쿠(北陸)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음

- 전 세계의 여러 업체들로부터 주문이 쇄도하는 만능공작기계는 대부분 일본 호쿠리쿠(北陸)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부품에서 제품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임
 - 예를 들어 전 세계 시장에서 연간 1억 장 이상을 판매하는 유니클로의 고기능성 속옷 히트텍(heattech) 생산은 호쿠리쿠(北陸)에 밀집한 섬유가공 회사의 기술 없이는 불가능함
 - 오랫동안 일본 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던 콤비나트 시대는 끝났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 한편에서는 콤비나트야말로 유력한 자원이 잠들어 있는 ‘산업집약지’라고 하는 견해도 존재함
 - 범용적인 플라스틱을 대량생산하기 위해 산업내분업을 하는 종래형의 석유화학은 한계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콤비나트에는 다른 회사 공장으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이 혈관과 같이 얽혀있고 고출력 발전설비 이외에 수출입을 위한 대규모 항만도 병설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은 이유가 없음
 - 업계재편에 맞춰 지금까지 콤비나트의 구성기업을 단순한 거래기업으로 간주해 왔던 각사의 생각이 바뀌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 가시마(鹿島)에서는 미쓰비시화학 이외 JX日鉱日石에너지그룹의 가시마(鹿島) 석유, 신에쓰(信越) 화학공업 등이 공동으로 발전설비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 2015년을 목표로 중질유를 분리해서 화학제품 등을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는 기술을 도입할 계획임
 - 일본 석유화학업체들은 점차 자신들이 얻을 이익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라는 이기적 관점에서 콤비나트 전체를 활용하여 이익을 창출하는 커다란 명제를 공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이 바뀌고 있음
 - 콤비나트 원래의 의미인 ‘종합회사’에서 보다 진보된 ‘운명공동체’를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임
 - 새로운 콤비나트 구상이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아님
 - 그러나 에틸렌 생산이라는 무거운 책임에서 해방됨으로써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임
 - 일본 특유의 콤비나트가 새롭게 개척할 미래상이 어떤 모습이 될지 전 세계 석유화학 업계가 주목하고 있음
- ## 2. 시장규모 및 수출입 동향
- ### 1) 일본 국내 시장 규모
- 일본의 2013년도 에틸렌 내수는 506만 톤(전년대비 1.7%포인트 증가)으로 3년 연속 증가했으나 연간 생산량이 여전히 500만 톤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임
 - 일본 국내경기가 소비 증가, 공공공사(2012년도 추경예산 집행), 주택투자(증세 이전 투자 증가)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석유화학 제품도 토목건설과 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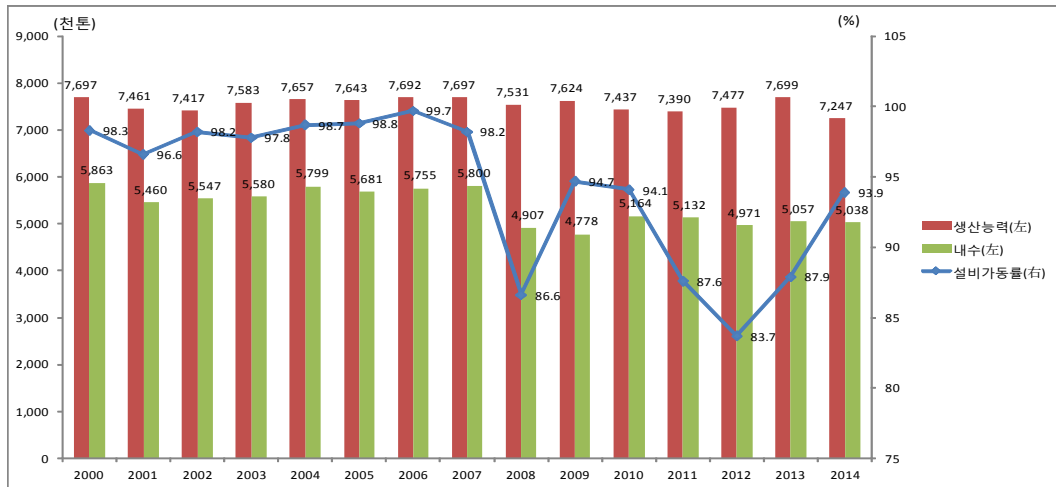
- 업부품분야(자동차)에서 일부 증가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요인 등의 증가분을 제외하면 생활관련 용도를 중심으로 수요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
- 석유화학의 각 제품별로 최근의 시장동향을 살펴보면 각기 다른 실적과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석유화학제품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합성수지의 일본 내수는 2013년 여름 이후의 주택착공증가 영향으로 염화비닐수지(PVC)과 폴리스틸렌(PS)이 완전한 증가세를 보였음
 - 2013년 후반의 자동차생산 증가로 폴리프로필렌(PP)은 수요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폴리오레핀 수요는 최대 실적 대비 약80% 정도에 머물러 있음
-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과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은 필름 등 범용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제품이 일본제품을 대체해 나가고 있음
- 일본 국내 수요기업들은 제품 공급처를 분산시키면서 국내외 가격차를 감안하여 제품을 선택하고 있음
 - 폴리프로필렌(PP)은 특히 수요기업에서 식품용 포장을 점차 가볍고 얇게 만들어 제품재고를 줄이려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다소 감소하고 있으나, 2013년도 후반에는 자동차용도가 증가하면서 전체 수요는 조금 증가하였음
 - 폴리스틸렌(PS)은 가장 많이 쓰이는 식품포장에서 각 수지(樹脂)별 비용격차 때문에 PET와 PP로 대체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수요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임
 - 염화비닐수지(PVC)는 내진공사와 공공공사, 주택착공증가의 영향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2) 수출입 및 생산 동향
- 2013년도 에틸렌 수출은 전년대비 19.8% 증가한 240만 톤을 기록했음
- 대만의 플랜트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세계시장에서의 수급 균형이 깨져 일본의 대외 수출이 대폭 증가했음
 -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고 있는 중국의 범용수지 수입이 안정적인 추이를 보였고, 일본의 유럽 수출도 점차 회복되고 있음

〈표 1〉 최근 일본 에틸렌 내수 및 수출입 추이

	2012년		2013년		2014년(예측)	
	실적(천톤)	증감율(%)	실적(천톤)	증감율(%)	실적(천톤)	증감율(%)
내수	4,971	▲3.2	5,057	1.7	5,038	▲0.4
수출	2,002	▲3.6	2,399	19.8	2,437	1.6
수입	712	▲3.1	692	▲2.8	674	▲2.6
생산	6,261	▲3.3	6,764	8.0	6,802	0.6

자료: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4年度の日本産業動向(石油化学)'에서 인용

〈그림 1〉 일본 에틸렌 수급 균형



자료: みずほ銀行産業調査部, '2014年度の日本産業動向(石油化学)' 자료를 인용하여 작성

- 한편 2013년도 수입은 전년대비 2.8% 감소한 69만 톤에 머물렀음
 - 엔화 가치 변화로 다소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재해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 결국 2013년도 에틸렌의 무역균형은 주로 수출 증가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전년대비 32.3% 증가한 171만 톤을 기록했음
- 2013년도 에틸렌 생산은 내수가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역불균형이 개선되면서 전년 대비 8.0% 증가한 676만

톤을 기록했음

- 2013년도 가동률도 전년대비 크게 호전되어 87.9%를 기록했음
- 2014년도에는 계속해서 무역불균형이 개선되면서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0.6% 증가한 680만 톤에 이를 것으로 보임
- 2014년 5월에 미쓰비스화학이 생산 공장 한 곳을 폐쇄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생산능력이 전년대비 5.9%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가동률은 93.9%로 4년 만에 9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됨 

전자부품시장

< 포인트 >

- 이른바 '스마트폰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 전자부품업체들의 실적이 점차 호전되고 있음
- 일본 전자전기업체들이 전반적으로 고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부품업체들의 경쟁력은 여전히 강한 것으로 나타남
- 국내 전자부품업체들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시장이 성숙단계에 진입할 것에 대비, 자동차 및 의료서비스 분야로 사업영역을 적극적으로 확장해 나갈 필요

1. 업계 최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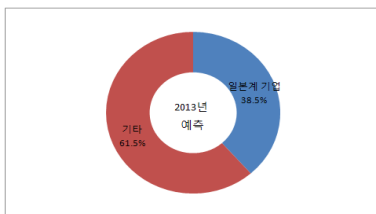
1) 전자부품 업계의 특징

-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전자부품은 디지털 기기와 전기전자제품에 탑재되는 부품을 총칭하고 있음
- 그 중에서 콘덴서와 코일과 같이 전기 신호의 입력을 받아 전기를 축적하거나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자부품을 '수동 부품'이라고 하고 스위치와 커넥터 등은 '기구(機構)부품'이라고 함
- 전자부품은 보통 가전제품, 스마트폰, 컴퓨터, 자동차, 시계 등과 같은 완제품에 조립부품으로 들어감
- 전자부품은 각각의 전문성이 높기 때문

에 기술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뿐 아니라 국제적인 수평분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대량 수주를 소화할 수 있는 기업체질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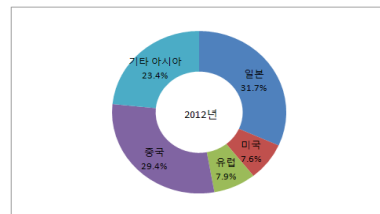
-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시장이 크게 확장되고 있는 반면 TV와 PC의 판매는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음
- 따라서 스마트폰 관련 수주 상황에 따라 부품 업체의 실적이 좌우되고 있는 실정임
-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일본 전자부품업체가 상대적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초소형부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그림 1> 일본 전자부품업체의 세계시장 점유율



주: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가입사 집계
자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그림 2> 일본계 전자부품기업의 국가별 출하 비중



주: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가입사 집계
자료: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 전자부품 업계는 빠른 기술혁신으로 순식간에 진부한 기술로 변해버리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
 - 그러나 높은 기술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세계시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적지 않음
 - 파나소닉, 소니 등 일본 업체들이 고전하고 있고, 한국 및 대만업체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세계시장에서의 일본 전자부품 업체들의 존재감은 여전히 큼
 - 실제 2013년말 기준으로 세계시장에서 일본 전자부품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달하며, 중국 및 신흥국 등 해외거점으로 출하되는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임(<그림 1>, <그림 2> 참조)
 -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은 일본 국내에서 생산하고 가격경쟁이 치열한 범용제품은 해외생산 비중을 높이면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일본 업체의 전략임
- 한편 LTE(고속 데이터통신 서비스) 등의 고기능화와 경량화로 스마트폰 한대 당

탑재되는 전자부품 수는 종래의 휴대전화에 비해 2~3배로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일본 전자부품 업체 중에서도 특히 삼성전자와 애플에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은 ‘스마트폰 경제권’을 형성하면서 대폭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있음

<표 1> 특정 분야에 강점을 가진 일본 전자부품 업체

분야	업체
모터	일본전산, 마부치모터
콘덴서	일본케미콘, 니치콘
커넥터	히로세전기, 호시덴
수정디바이스	미야자키엡손, 일본전파공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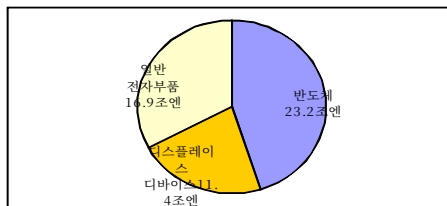
자료: ‘業界地図が一目でわかる’, 2014년판, 本知的生きかた文庫에서 인용

2. 일본 전자부품의 위상과 대외무역

1) 일본 전자부품 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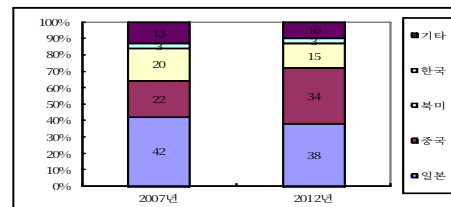
-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부품·디바이스의 세계 생산액은 51.5조 엔에 달하고 있음
 - 구체적인 내역을 살펴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가 34.6조 엔으로 전체 생산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3> 전자부품·디바이스 세계생산액(2012년)



자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電子情報産業の世界生産見通し’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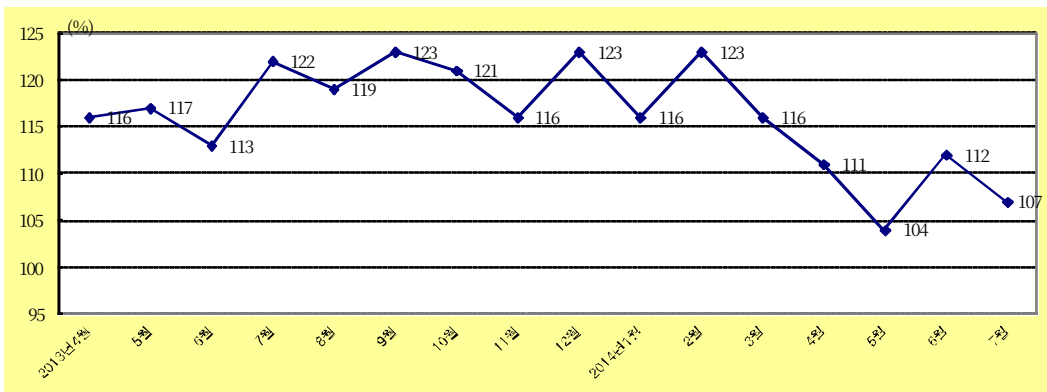
<그림 4> 국가별 저항기(抵抗器)·콘덴서의 세계생산액 내역(단위:억달러)



자료: 日本政策投資銀行, ‘日本の電子部品産業の強みと競争力強化に向けた方策’(2014년9월17일)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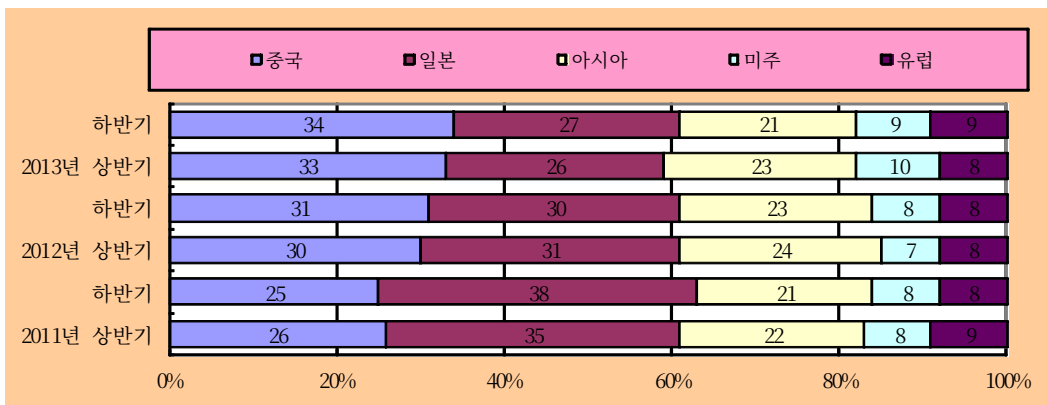
- 그러나 일반전자부품(수동부품, 접속부품, 변환부품 등)도 16.9조 엔에 달하는 큰 시장임
- 일본기업의 일반전자부품 세계 출하액은 스마트폰과 자동차용 호조로 2014년 7월까지 17개월 연속해서 전년 실적을 추월하고 있음
- 특히 중국으로의 출하액이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고 2012년 하반기 실적은 처음으로 일본 국내 출하액을 초과했음
- 일본 국내의 전자부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일본의 전자부품 업체들은 확대하는 중국에서의 수요를 겨냥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있음

〈그림 5〉 일본의 전자부품 전년동월대비 세계 출하량(%)



자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발표 자료를 근거로 작성

〈그림 6〉 일본 전자부품 국가별 출하량 비중



자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발표 자료(전자부품 글로벌출하 통계)를 근거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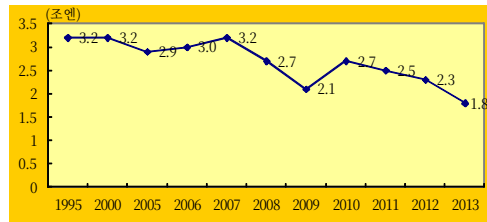
2) 일본 전자부품의 대외무역

- 일본의 일반전자부품 업체는 일찍부터 해외생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전체 출하액에서 차지하는 해외생산 비율이 약70%에 달하고 있음
 - 일본정책투자은행 조사에 따르면 일본 전기기기의 해외투자는 2013년도 전년 대비 2.1% 증가에서 2014년도에는 전년대비 23.1%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자부품·재료 업체를 중심으로 해외투자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왕성한 해외 현지 수요에 대응하는 전략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한편 해외생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국내생산 규모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특히 이 같은 일반전자부품 업계의 현상은 국내 생산 감소폭이 커지면서 해외생산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반도체와는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음
- 대표적인 전자부품 중 하나인 저항기(抵抗器)·콘덴서의 세계 생산액을 국별로 살펴보면 중국 등 해외에서의 생산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일본에서의 생산액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국내외 생산규모가 줄어 들지 않고 함께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중국에서의 생산은 현지의 중국기업은 물론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현지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7〉 일본 전자부품·디바이스의 무역수지 흑자규모 추이



자료: 일본 전자정보기술산업협회 홈페이지 발표 자료(전자부품 글로벌출하 통계)를 근거로 작성

- 전자부품 디바이스의 무역수지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전자부품은 수동부품과 접속부품의 2개 품목이 2000년 이후 매년 약1조 엔의 무역흑자를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최근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추세에 있으며 2014년 들어와서도 1조엔 이상의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특히 그 동안 전자부품 중에서 수출실적이 저조했던 전원(電源)과 모터의 전력제어용과 같은 반도체소자도 최근 안정적인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음
 - 결과적으로 일본 국내는 전자부품의 국내외 수요에 대응하는 생산거점으로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차세대자동차시장

< 포인트 >

- 차세대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일본 자동차업체들이 연합하여 충전소 등 정비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을 설립
- 그러나 하이브리드자동차 이외의 차세대자동차시장은 관련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인해 당초 예상대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차세대자동차와 관련한 사업의 수익성 확보가 시장 확대의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됨

1. 최근 일본 차세대 업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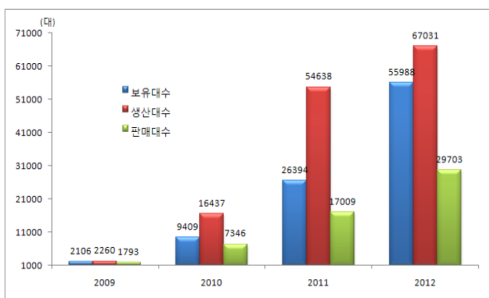
- 일본 자동차업체가 전기자동차의 국내 인프라 정비에 조급함을 드러내며 충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 미쓰비시자동차는 공동으로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위한 충전인프라 회사 ‘일본충전서비스’를 2014년 5월 26일 설립한다고 발표
 - 정부 산하 금융기관인 일본정책투자은행도 출자할 예정으로, 4개 자동차회사가 각각 21.35%, 일본정책투자은행이 14.6% 출자
 - 대표이사는 도요타자동차 국내영업을 담당하는 사토(佐藤)상무가 취임
- 일본충전서비스는 충전기를 설치하는 회사에 정부 보조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부분(공사비 등의 설치비용의 3분의 1)을 지원하고, 유지비와 전기료 등 운영비도 대신 부담하게 됨
 - 이러한 지원의 대가로 일본충전서비스가 충전기 이용권을 취득하고 일괄적으로 관리하게 됨
- 일본충전서비스는 회원인증을 할 수 있는 IC카드(충전카드)를 4개 자동차업체에게 발행하게 됨
 - 각 자동차업체는 그것을 자사의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소유자에게 제공하고 요금을 징수함
 - 충전카드를 소유한 이용자는 일본충전서비스가 운영하는 충전소라면 어디에 서든지 충전할 수 있게 됨
 - 또한 수입차 등 4개 자동차회사 이외의 이용자에게는 일본충전서비스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월정액 및 종량제 등 과금방법과 요금 수준은 각 업체가 독자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음
- 2014년 3월말 현재 일본 전역에 설치된 충전기는 급속충전기가 2,000대, 보통충전기는 3,000대 정도임
 - 일본충전서비스는 2014년 내에 서비스

- 를 시작할 예정으로 12월말까지 급속충전기 4,000대, 보통충전기 8,000대 등 합계 12,000개를 설치할 계획임
- 이번에 일본의 각 자동차업체가 공동으로 신규 충전회사를 설립한 것은 충전인프라 정비가 생각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임
 - 전동차량, 특히 전기자동차가 보급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충전인프라가 정비되어야 함
 -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충전기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 가장 최근에 실시한 정책지원은 지난 2013년 경제산업성이 1,005억 엔의 보조금을 확정한 것이었음
 - 지금까지의 제도보다 보조비율을 대폭 높여, 2014년 3월까지 급속충전기 4만대, 보통충전기 6만대를 확충한다는 계획이었음
 - 이러한 계획은 현존하는 가솔린 주유소 규모로 충전소를 늘려야 한다는 목표에서 나온 것이었으나 설치하고자 하는 회사가 적어 불발로 끝나고 말았음
 -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타개책으로 도요타자동차, 닛산자동차, 혼다, 미쓰비시자동차가 2013년 11월에 공동으로 자금지원사업을 시작했음
 - 이번에 출범한 일본충전서비스는 이 사업을 회사형태로 변형시키면서 정부 자금을 유치하는데 성공한 것임
 - 다만, 그렇다고 해서 생각한대로 모든 관련 정비가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아 있는 상태임
 - 설치사업자는 초기투자비는 물론 운영비도 필요 없게 되었지만, 수익을 얻는 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짐
 - 따라서 ‘노리스크 노리턴(No Risk No Return)’사업이 되기 때문에 투자할 동기부여가 낮아지게 됨
 - 전기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약500개 점포에 충전기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던 패밀리마트 등의 사례도 있음
 - 그러나 충전할 수 있는 공간 확보와 현장에서의 적절한 서비스 등을 고려하면 설치사업자가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가령 정비가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일본 충전서비스의 경영문제가 남음
 - 충전기설치 사업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에 의한 정비가 진행되지 않는 것이며, 사업적자는 불가피함
 - 자동차 각사에게는 전기자동차(EV)나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판매촉진을 위해 충전기설치 정비가 필요하지만, 결국 정부 보조금과 정책투자은행 자금은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충당하는 것임
 - 과연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를 포함한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이

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음

- 충전 인프라가 없기 때문에 전기자동차가 팔리지 않는다는 것이 정비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임
- 그러나 항속거리가 짧다는 불편함을, 급속충전을 하더라도 한 번에 30분이나 걸리는 충전기 숫자로 커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임
- 이미 일본은 급속충전기 보급대수에 있어서는 단연 세계1위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 보급대수는 약5만6천대에 머물러 있고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그림1> 참조, 2012년 보유대수 기준)
- 또한 충전지에 기인하는 높은 가격을 포함하여 전기자동차에는 상품으로서의 본질적인 한계가 아직 있고, 그것이 보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
-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충전 인프라를 정비하더라도 헛수고로 끝날 가능성이 있음

<그림 1> 전기자동차 보유, 생산, 판매대수 추이



주: 전기자동차(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PHEV)의 합계

자료: 次世代自動車振興センター 홈페이지(www.cev-pc.or.jp) 발표 자료에서 인용

□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또 다른 차세대 자동차인 연료전지 자동차도 상황은 비슷한 것으로 보임

- 인프라를 정비하는 것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전기자동차와 함께 차세대자동차의 주역으로 인식되고 있는 연료전지자동차(FCV)도 마찬가지 상황임
- 연료전지자동차는 수소를 연료로 하는 연료전지(FC)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로 이산화탄소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등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 기대를 모으고 있음
- 현재 일본에서 연료전지자동차는 일부 시험차량이 지자체 등의 단체에 리스 형식으로 판매되고 있는 상황임
- 정부와 자동차 업계 단체는 2014년 말 늦어도 2015년에는 일반판매용 연료전지자동차 판매를 시작할 계획

□ 연료전지자동차는 도요타자동차와 혼다가 이미 2013년에 연이어 시판 자동차를 상정한 컨셉카를 발표하는 등 준비가 진행되고 있음

- 그러나 수소 충전소(스테이션)를 정비하는 작업은 당초 계획보다 훨씬 더 더디게 진행되고 있음
- 경제산업성에서는 설치비의 절반을 부담하는 보조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설치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나 단체는 많지 않은 상황임
- 2014년도에 할당된 보조금을 실시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관심 있는 업체를 모집했으나 정원을 채우지 못했음

- 수소충전소는 전선을 설치하면 완성되는 전기 충전소와 달리 고압 가스탱크 등의 고가 설비가 필요함
 - 정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곳당 5억 엔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비용의 절반을 정부가 보조하더라도 한 곳당 2~3억 엔의 투자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설치가 가능함
 - 실제 고객이 되는 연료전지자동차는 발매로부터 수년간 수 만대 보급되면 대성공이라고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요로 수익을 창출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임
 - 앞으로의 기술개발과 규제완화로 설비 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투자를 단행하는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임
- 이미 자동차가 일정 수준 이상 판매되었고 투자액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전기자동차조차 인프라 정비가 어려운 상황임
 - 하물며 자동차 판매는 지금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어야 하는 수소충전소 정비는 앞으로도 난항을 여러 차례 극복해야 할 것으로 전망됨

2. 차세대자동차별 장단점

- 연료전지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등 선도적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일본에서 각각의 차세대자동차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매력은 무엇인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표1>참조)

1) 연료전지자동차(FCV)의 과제

- 연료전지자동차는 가장 친환경적이라는 점 등 나름대로의 매력이 적지 않지만 해결해야만 하는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임
 - 비싼 차량가격 및 충전소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앞으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연료전지자동차가 주행에 필요한 에너지로 이용하는 수소는 천연가스 등의 분해증류(Cracking)로 생성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게 됨
 - 따라서 환경적 측면에서 연료전지자동차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어 앞으로 수소생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줄이든지 없앨 것인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
 - 또한 결론적으로 수소연료비 가격을 낮추지 못하면 소비자가 느끼는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임

2) 전기자동차(EV)의 과제

- 다른 차세대자동차에 비해 전기자동차는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대단한 매력임
 - 그러나 차량가격 이외에 가정에 충전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충전기 가격을 감안해서 생각해야 할 것임
 - 항속거리와 충전시간 문제는 모두 전지 성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가장 중요한 것은 차량용 2차전지의 진화가 전기자동차의 진화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점임

〈표 1〉 각 차세대자동차의 매력 및 과제

	하이브리드 자동차(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전기자동차(EV)	연료전기자동차(FCV)
매력	- 연비향상으로 연료비 절감 - 다양한 차종 - 충전기설치 불필요	- 연비향상으로 연료비 절감 20km이상 EV주행 2025년 캘리포니아주 ZEV규제 대상에서 제외	- 주행 에너지비용 800~900엔/500km - 가정충전과 비상시의 외부 전원화 2025년 캘리포니아주 ZEV규제 대상에서 제외	- 선진성 - 정숙성 - 충분한 항속거리 - 외부전원으로 가정전력 1주일 분 2025년 캘리포니아주 ZEV규제 대상에서 제외
과제	- 가솔린자동차보다 고가 - HEV시스템의 제거기술 프로그램 원인으로 리콜(도요타, 혼다) 2025년 캘리포니아주 ZEV규제 대상에서 제외	- 충전기 가정 설치 - 가정 충전이 필요 - 차량가격 저감	- 항속거리 제한 - 장시간 충전 - 혁신전지 실현 - 충전지의 가정 설치 - 충전인프라 정비 - 차량(전지)가격 저감 - 발전시스템에 의한 이산화탄소 증가(중국)	2025년 일본보급목표 200만대 - 차량가격 저감(보조금 200만엔?, 500만엔 이하의 차량목표) - 수소연료비 저감 ✓제조, 고압압축, 수송 ✓압축기: 1억1천만엔 ✓주행거리의 가솔린가격 대비: 1.5배 ✓수소연비 10km/m3 - 수소충전소 정비 ✓설치비용 4억6천만 엔(정부보조금 2억 8천만엔) ✓2025년도 950곳?(현재 주유소 3만 4천곳) - 백금촉매 저감 - 이산화탄소 프리사이클

자료: 日経ONLINE, ‘環境自動車で日本がリードし続けるための条件’, 2014년 8월 28일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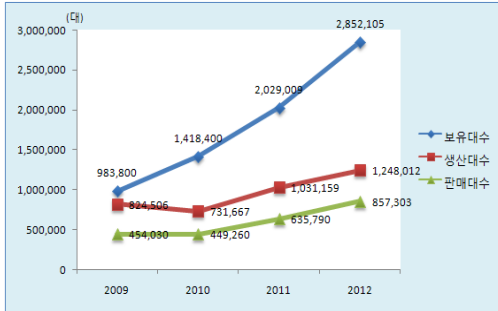
- 그런 의미에서 현재 리튬이온전지의 성능 향상뿐 아니라 미래 리튬이온전지로 불리는 혁신전지의 연구 성과가 전기자동차 보급에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보임
- 일본정부도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국책 프로젝트에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으로 진행되는 연구개발은 사회에 환원하는 성과 도출의 책임이 수반될 것임

3) 하이브리드자동차(HEV)의 과제

- 일본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이미 완전한 보급단계에 접어들었고 사회적 인지도도 매우 높음
- 가솔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현상에 비추어보면 연료소비가 적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소비자가 직접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임에 틀림없음
- 특히 일본과 같이 도로사정이 열악하고 도심지역에서의 교통정체 빈도가 높은

시장에서는 효과가 뛰어난 자동차임

〈그림 2〉 하이브리드자동차 보유, 생산, 판매대수 추이



자료: 次世代自動車振興センター 홈페이지(www.cev-pc.or.jp) 발표 자료에서 인용

-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보급을 생각하고 있던 중국 정부도 최근 하이브리드자동차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보조금 대상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적 결정을 모색하고 있음
- 중국에서 전기자동차를 보급시키기 위한 시나리오의 원점은 중국정부의 보조

금 정책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시장 환경을 고려하면 상당한 무리와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임

- 현재 시장에서 지적되고 있는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최대 과제는 구동시스템과 관련된 것임
- 하이브리드자동차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엔진구동과 전기구동을 제어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임
- 도요타자동차의 프리우스는 물론 혼다의 피트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임
- 이 두 회사가 하이브리드자동차를 중심으로 상품 전략을 구축하여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문제도 먼저 경험하고 있는 것임
- 따라서 다른 회사도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상품 전략을 구축하게 되면 동일한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음 **JE**

일본 제조업의 전력수요 억제요인

* 이 자료는 일본종합연구소 후지나미타쿠미(藤波匠) 주임연구원이 『Research Focus』에 기고한 「철전을 경제성장의 발판으로」(‘14.8.21)」의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임

- 동일본 대지진 이후 비교적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전력수요는 별로 늘지 않았는데, 그 최대요인은 기업들의 설비투자 확대에 의한 원단위 개선임
- 반면,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절약형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변화가 에너지 수요 감소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근에는 거의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일본이 원전 제로하에서 지속적인 성장과 전력수요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변화에 의한 가일층의 전력수요 억제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기업들의 자율적인 노력과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음

■ 일본의 전력수요 변화와 그 요인

- 일본의 총 전력수요는 2011년 대지진 직후 크게 감소하여 최근에는 1990년 후반 수준까지 저하
- 2013년에는 일본경제가 2.3%의 비교적 높은 성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력수요가 별로 늘지 않았음

■ 전력수요 억제 요인은 제조업의 원단위 개선

- 전력수요 억제의 최대 요인은 바로 제조업의 원단위 개선임
- 일본의 전력 수요원은 제조업, 민생용 업무(주로 서비스), 민생가정 등 3개 부문임
- 이중 2011년 3월 대지진 이후 일본의 전력삭감율이 가장 큰 것은 제조업으로 2013년에 전년대비 15.9% 감소, 민생용은 5.9% 감소, 민생가정용은 1.7% 감소
- 제조업의 전력수요 억제효과는 기본적으로 원단위에 의한 것으로서, 기업의

절전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것임

- 일본의 에너지수요에 대한 GDP 탄성치는 2000년까지는 플러스 값을 보였으나 2001년 이후에는 마이너스로 반전
- 그 주된 요인은 경제성장의 원천이 에너지 다소비형산업으로부터 가공조립형 산업으로의 변화와 에너지절약기술의 진전에 있음
- 전력수요(전력사용량)변화는 ①생산요인, ②구조적 요인(산업구조 변화), ③원단위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최근에는 구조적 요인보다는 원단위 요인에 의한 부분이 큼

■ 설비투자에 따른 전력수요 억제효과가 큼

- 설비투자는 절전이나 에너지절약을 의도하지 않더라도 최신 기계나 건설자재로 치환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절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전력요금이 상승할 때 기업들이 실시하는

- 설비투자는 부차적인 효과로서 절전을 염두에 두는 것은 당연한 경영판단임
- 태양광 패널이나 자가발전설비를 공장 과 사무실에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전력수요억제는 거의 없어

- 최근 일본 제조업의 전력수요 억제는 주로 절전노력에 의한 것이며 구조적인 요인, 즉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효과는 거의 없음
- 현시점에서 구조적인 요인에 의한 전력수요 억제효과는 보이지 않으나, 앞으로 전력요금이 계속 상승하게 되는 경우 점차 산업구조 전환에 의한 수요 억제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전력다소비산업의 현황과 대응

- 2014년 5월 일본철강연맹 등 전력다소비형산업 11개 단체가 경제산업성에 전력다소비산업의 존속을 위한 긴급 요망서를 제출
- 이들 업계는 전력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업 축소·철수·도산 등이 잇따라, 일본 국내에서 사업을 존속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호소하고, ①신속한 원전재가동을 위한 환경정비 ②재생가능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의 개선, ③ 전력다소비산업에 대한 에너지절약지원책 강화를 요구
- 일본의 전력다소비산업의 현황을 보면, 업계규모의 유지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임
- 철강업가운데도 전력의존도가 높은 업체는 상기 11개 단체 중 전로업계임

- 고로·전로에 의해 철광석에서 생산되는 전로강은 2008년 이후 리먼 쇼크와 대지진을 경험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으나, 그 후 회복되고 있어 현재는 거의 완전가동 상태에 있음
- 한편 스크랩을 원료로 전기로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전로강은 2013년 생산량이 피크였던 2007년의 82%,생산능력의 61%정도에 불과
- 일본 전로업계는 중국의 스크랩수요 급증으로 인한 전력요금 및 제조원가 상승으로 어려운 입장에 처하고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업계 재편이 필요한 상황임
- 일본의 전력다소비산업가운데는 해외생산이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도 있음
- 티탄 정련업계도 전로업과 마찬가지로 공급과잉상태에 있어 동방티탄(주)같은 기업은 전력요금이 싼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지기업과 합작진출을 결정
- 그 밖에 주조업계 등도 이미 폐업 등이 속출, 앞으로 이 같은 전력다소비산업의 재편과 사업규모 축소 등으로 전력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지속 성장을 위한 전력수요 억제 대책

- 일본경제가 2020년 총온실가스효과 가스배출량 목표를 달성하면서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2012년 대비 -5.8%이상 전력수요를 억제해야만 함(원전제로하에서 2008년~2012년 교토의정서 약속기간 중 실적치까지 억제하는 경우)
- 제조업 부문에서 -8%, 민생업무 부문에

- 서 -9%, 민생가정 부문에서 -4% 억제
- 특히 제조업부문에서 전력수요 억제를 위해서는 산업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 과거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에는 구조불황업종을 지정하여 불황카르텔을 인정하고 업계재편을 유도
- 현재는 기업의 개업·폐업을 인상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불황업종대책을 중요과제로 인식, 2014년 1월 제정된 산업경쟁력강화법을 활용하는 등, 주로 소재산업에서 과잉공급 해소가 과제로 되고 있는 업종에서 업계재편을 촉구
- 이와 함께 온난화대책에 맞추어 업계의 자율적인 삭감목표 설정
- 정책적 지원은 노후화된 빌딩의 개폐, 에너지절약과 자가발전을 위한 설비투

자, ZEB(네트·제로에너지·빌딩)등의 보급·촉진 및 이를 위한 세제상의 우대, 절전기술 연구개발 지원 등이 논의되고 있음

■ 시사점

- 절전 메리트는 전력 공급능력에 대한 우려 외에도, ①CO2 배출억제, ②에너지절약 기술 축적, ③산업구조 전환, ④에너지 안전보장의 관점에서 매우 큼
- 경제주체들의 절전마인드나 절전을 위한 인내에 더하여 정책적 지원도 필요
- 제조업에서는 산업구조 전환, 민생부문에서는 투자를 동반한 절전, 나아가 각 부분의 절전기술 개발노력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뒤따를 때 지속적 성장과 전력수요 억제가 양립될 수 있음

일본기업의 저가 스마트폰 개발동향

- 중국기업들이 저가의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스마트폰의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
- 일본에서도 저가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벤처기업들이 등장하여 스마트폰 초급사용자나 법인 등 특정 수요를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있음

■ 인하되는 스마트폰 가격

- '14년 스마트폰 세계평균 판매가격은 300달러를 하회할 전망,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50달러, 중국시장에서는 205달러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200달러 미만의 저가 스마트폰의 '14년 출하대수는 전년대비 42% 증가한 4.3억 대로 스마트폰 연간 총출하대수의 약 40%를 차지
- 아이폰이나 갤럭시 시리즈와 같은 400달러 이상의 고급 제품은 전년대비 -6% 감소 추세로 전환
- 신흥국을 중심으로 저가 스마트폰이 대두, 성능 향상으로 인한 제품 간의 차이가 축소되고 있으며 가격 부담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려는 소비자 증가
 - * 1인당 GDP가 10,000달러 이하의 중·저소득국가에서 저가 스마트폰의 수요가 급증
- 거의 대부분의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구글의 OS·안드로이드는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의 진입 장벽이 낮음
- CPU도 미국의 퀄컴이 독점하여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만의 미디어텍이 진입하여 값싼 CPU를 공급하고 있음

■ 중국과 인도의 저가 스마트폰 시장 동향

- 중국에서 저가 스마트폰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은 샤오미(小米; Xiaomi), 쿠파이(酷派; Coolpad), ZTE(中興通訊) 등임
- 샤오미는 1999위안(약 325달러)의 M 시리즈가 주요 제품이었지만, '13년 여름에 판매된 799위안(약 130달러)의 초저가 스마트폰 홍미(紅米)가 히트, 가격대비 성능이 좋아 젊은층 소비자들이 선호
- 현재 중국에서 샤오미 제품은 수량한정 예약 판매만 하고 있으나, 예약이 시작 되면 만나질 만에 500만대가 팔릴 만큼 인기가 높음
- 중국에서 스마트폰을 개발하는 기업이 400여개나 되기 때문에 저가 제품 간에서도 경쟁이 격화되어 특색이 있는 스마트폰이 잇달아 출시
- 1000위안(약 160달러) 이하 저가 스마트폰을 주력으로 하는 ZOPO(深圳卓普通訊設備)는 동영상이나 카메라 성능 향상을 추구, 3D 동영상도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을 개발
- Doov(深圳市朵唯志遠科技)는 다양한 색상, 셀카 카메라 기능 등을 강화하여 여성을 타겟으로 한 저가 스마트폰을 전개

- 스마트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인도에서도 현지 브랜드의 저가형 스마트폰이 시장을 장악

< 브랜드별 스마트폰 출하대수 세어(2014.4~6월, %) >

	세계 (3억 134만대)	미국 (3,576만대)	일본 (492만대)	중국 (1억 441만대)	아태 지역 (1억 5,547만대)	인도 (1,842만대)
1	삼성전자 24.9%	삼성전자 33.8%	애플 43.6%	레노버 12.5%	삼성전자 16.0%	삼성전자 28.8%
2	애플 11.7%	애플 31.8%	소니 18.3%	샤오미 12.4%	레노버 9.4%	마이크로맥스 17.8%
3	화웨이 6.7%	LG 10.8%	샤프 14.3%	루파이 11.5%	샤오미 8.9%	카본 7.8%
4	로노버 5.2%	ZTE 7.6%	삼성전자 10.2%	화웨이 11.4%	화웨이 8.5%	라바 6.3%
5	LG 4.8%	모토로라 5.8%	코세라 6.1%	삼성전자 9.8%	루파이 7.7%	모토로라 5.3%
기타	46.7%	10.2	7.5	42.4	49.5	34.0

- 마이크로맥스의 저가 스마트폰 Bolt A62는 필요한 기능만 한정하고, 2년 전에 나온 부품을 사용하는 등 철저히 비용 삭감을 추구
- CPU가 열에 약하고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떨어지긴 해도 70달러라는 판매가격이 매력적임
- 마이크로맥스는 '14년에 러시아로 진출 하였고, 지금은 일본진출도 검토하고 있어 최초로 글로벌 스마트폰 브랜드화를 추진
- '13년 인도에서 인기가 많았던 소니(Xperia 시리즈)도 카본, 라바 등도 저가 스마트폰 기업에 밀려 점유율이 하락

■ 저가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일본 부품

- 샤오미의 저가 스마트폰 「홍미」에는 일본산 부품이 많이 사용되고 있음
- 액정 디스플레이는 고급사양인 샤프 제품을 사용, 터치 패널이나 제어 반도체 등 디스플레이 주변 모듈 부품의 원가는 약 30달러
- CPU 등 칩 세트는 대만의 미디어텍 제품으로 통일, 원가는 약 15달러
- DRAM과 플래시메모리는 도시바의 멀

티칩패키지(MCP), DRAM의 용량은 1G로 원가는 8달러

< 샤오미의 홍미(紅米)에 사용된 일본제 부품 >



- 아이폰의 플래시메모리가 16~64G인 것에 비해 홍미는 4G에 불과하여 원가는 1달러 이하, 본체 데이터 저장이 거의 불가능함으로 별도의 SD카드가 필요
- SAW필터는 세계 세어 40% 이상을 차지하는 무라타제작소의 필터, 히로세전기의 커넥터 등을 사용
- 부품 원가율이 판매가격(130달러)의 60% (80달러)이며 박리다매(薄利多賣)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인기를 얻고 있음
- 애플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의 부품기업들에게 샤오미는 중요한 공급처가 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저가 스마트폰 개발동향

- 일본에서도 '13년 말부터 10,000~20,000엔대의 저가 스마트폰이 출시, 이동통신망사업자에게 임차하여 자사 브랜드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도 급증하여 저가 스마트폰과 세트 판매를 시작
- 예를 들면 전자제품 판매점인 요도바시 카메라는 Plus One Marketing의 저가 스마트폰 freetel priori(10,584엔)를 월 979엔(2년 약정, 데이터통신량 무제한)

으로 판매

- Plus One Marketing은 고장이 잘 나지 않는 일본 제품의 품질을 강조하면서 아프리카 등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에 진출을 계획 중
- Freebit는 단말기 PandA의 개발 외에도 MVNO로서 통신서비스, 매장 운영, 고객 지원까지 일괄 관리
 - * PandA는 2년 약정, 데이터 무제한으로 월 2,160엔

< 일본의 저가형 스마트폰 벤처기업 >

【기업명】 Freebit 【종업원】 608명 【대표 스마트폰】 Panda 【OS】 Android 4.2.2 【가격】 25,920엔 【화면 크기】 5.5인치 【무게】 189g 【카메라】 뒷면 800만, 앞면 200만 화소 【배터리】 2500mAh 【CPU】 쿼드코어 1.3GHz	【기업명】 Covia 【종업원】 60명 【대표 스마트폰】 FLEAZ F5 【가격】 20,304엔 【OS】 Android 4.4 【화면 크기】 5인치 【무게】 145g 【카메라】 뒷면 500만, 앞면 30만 화소 【배터리】 2000mAh 【CPU】 쿼드코어 1.2GHz
【기업명】 Plus One marketing 【종업원】 4명 【대표 스마트폰】 freetel prior 【가격】 10,584엔 【OS】 Android 4.1.2 【화면 크기】 3.5인치 【무게】 113g 【카메라】 뒷면 200만, 앞면 30만 화소 【배터리】 1500mAh 【CPU】 싱글코어 1GHz	【기업명】 JENESIS HD 【종업원】 74명 【대표 스마트폰】 geanee 【가격】 16,329엔 【OS】 Android 4.4 【화면 크기】 5인치 【무게】 133g 【카메라】 뒷면 500만, 앞면 200만 화소 【배터리】 2000mAh 【CPU】 쿼드코어 1.3GHz

- 스마트폰 종류는 PandA만 있으나, 다양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 요구에 대응
- Covia는 후쿠이대학 의학부속병원의 간호사 호출기와 연동시킨 스마트폰 단말기를 채용, 또 식당전용 단말기 개발 등 법인 수요 흡수 전략을 추진
- JENESIS HD는 대만의 EMS전문기업인 폭스콘과 협력하여 중국에 모바일전용 생산공장을 확보, 고령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온 쇼핑몰에서 초급자가 사용하기 쉬운 저가 스마트폰 판매에 성공
- 저가 스마트폰시장에 진입하는 기업이 증가하면서 가격 경쟁이 격화, 초기에 진입한 벤처기업들도 이제는 부가가치 제공에 주력하기 시작

■ 시사점

- 차기 포스트 중국으로 간주되는 새로운 스마트폰 시장인 인도, 아프리카 등에 서한 저가 스마트폰 기업들의 진출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
- 일본 스마트폰시장에서 철수한 파나소닉은 인도 현지기업과 제휴하여 인도시장에 진출, '14.9월 저가 스마트폰인 T11(약 162달러), T21(약 227달러), P11(약 274달러)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발표
- 생산 공장으로서의 중국은 수요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광동성은 저가 스마트폰 기업들의 공장이 집중되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저가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있는 벤처기업들은 설계, 판매, AS만 담당하고 생산은 중국의 OEM 기업을 활용
- MVNO사업자는 NTT도코모가 가장 크지만 수익창출은 네트워크 접속요금뿐이기 때문에 고객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음
- 도코모, au, 소프트뱅크 등 휴대폰 통신기업과 저가 스마트폰 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 LG, 팬택의 점유율이 9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의 진입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
- 세계3위인 중국의 통신업체 화웨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 스마트폰 X3를 40만원대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우리 시장에서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 선진국 스마트폰 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 인하는 피할 수 없는 대세

[일본 경제 동향 (2014. 11월)]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

I. 일본 경제 지표

구 분	2012	2013	2013	2014			2014		
			4/4	1/4	2/4	3/4	8월	9월	10월
GDP증가율(연율, %)	1.5	1.5	-0.5	6.7	△7.3	△1.6(p)	-		
경기동향지수(2010=100)	-	-	111.5	-	-	-	108.3	109.8	-
광공업생산증가율(전기비, %)	0.6	△0.8	1.9	2.9	△3.8	△1.9	-1.9	2.9	-
소비자물가 전기비	△0.1	0.4	0.3	0.2	2.3	0.3	0.0	0.0	-
상승율(%) 전년동기비	△0.1	0.4	1.1	1.3	3.3	3.2	3.1	3.0	-
실업율(%)	4.3	4.0	3.9	3.6	3.6	3.6	3.5	3.6	-
수출(조엔)	63.7	69.8	18.1	17.5	17.6	18.3	5.8	6.4	6.7
수입(조엔)	70.7	81.3	21.8	22.4	20.2	21.2	6.8	7.3	7.4
무역수지(조엔)	△8.4	△11.5	△3.7	△5.0	△2.6	△2.9	△1.0	△0.9	△0.7
경상수지(조엔)	4.8	3.3	△1.4	△0.9	0.3	-	0.3	1.0	-
해외직접투자(조엔)	9.8	13.2	3.1	2.6	2.0	-	0.6	0.7	-
환율	달러	80.1	97.7	100.5	102.8	102.1	104.0	103.0	107.1
	원화(100엔)	1,413	1,123	1035.7	1,039	1,008.2	987.3	996	962
금리(10년물, %)	0.78	0.72	0.64	0.63	0.60	0.53	0.51	0.54	0.49
주가(닛케이)	9,612	13,651	15,388	14,958	14,655	15,562	15,359	15,948	15,394

주: (p)는 1차 속보치, 자료: 일본 내각부, 재무성, 총무성, 후생노동성, 한국은행

□ (경기판단) 완만한 회복세

- '14.9월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8으로 전월비 1.5p 상승

□ (소비자물가) 소비자물가는 제자리 걸음

- '14.9월 전월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0%

□ (무역수지) 무역수지는 0.7조엔 무역적자로 28개월 연속 적자

- '14.10월 수출은 6.7조엔 수입은 7.4조엔

□ (환율) 엔화환율은 엔저 가속

- '14.10월 엔화의 대미달러환율 평균치는 108.1엔으로 전월대비 0.9% 엔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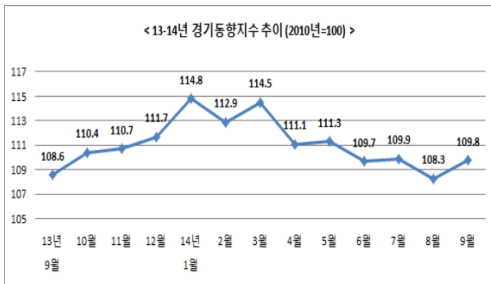
* '14.10월 엔화의 대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3원으로 전월대비 2.2% 엔고·원저

II. 최근 일본 경제동향 및 전망

1.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

■ (총 합)

- '14.8월에 하향수정된 내각부의 경기기조판단이 9월에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
- '14.9월 일치지수로 본 경기동향지수(2010년=100)는 109.8로 전월보다 1.5p 상승
- 생산의 호조와 고용 안정이 주된 요인



자료 : 내각부

■ (전 망)

- '14.2분기의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3분기에도 GDP가 예상외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임에 따라 일본정부의 2014년도 GDP성장률 전망치 1.2%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완전실업율이 3.6%로 완전고용에 근접한 상태에 있는데다, 엔저로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한 기업수익의 개선과 함께 광공업생산도 회복되어, 경기가 완만한 회복세를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강함

■ (시사점)

- 3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아베 총리는 2015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10%로의 재인상을 연기하고 이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중의원을 해산
- 예상을 넘어선 일본경제의 담보상태는 기업의 수익증가가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소비가 확대되는 아베노믹스의 선순환이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 있음
- 더욱이 일본경제의 실력을 나타내는 잠재 성장율이 0%대 중반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성장전략을 통해 성장력을 키우지 않는 한, 앞으로도 작은 여건변화라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질 가능성은 상존

■ (GDP) 2014. 3분기 성장률, 2분기에 이어 마이너스

- 일본 내각부가 11월17일 발표한 2014년 3분기 GDP성장률은(1차 속보치) 2분기의 마이너스 성장에 이어 전기비 -0.4%, 연율 환산으로는 -1.6%
-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폭이 커서 3분기에는 플러스성장을 되찾을 것이라는 V자 성장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으나 내수, 외수 모두 이 같은 예상을 빚나감
- 전기비 1% 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되었던 개인소비는 0.4% 증가에 그침
 - 소비세 인상, 엔저에 의한 수입가격 상승 등으로 3분기에 소비자물가가 4.0% 상승함에 따라, 실질임금이 2.5%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

〈 일본의 실질GDP 성장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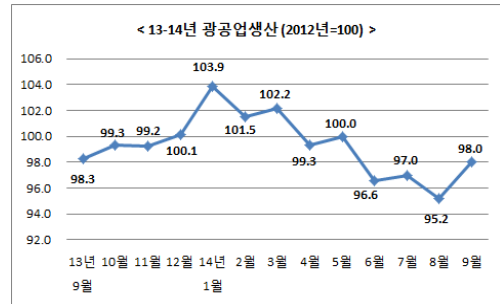
구 분	2012	2013	2013		2014			
			7~9월	10~12월	1~3월	4~6월	7~9월	10~12월
전기비	1.5	1.5	0.6	-0.4	1.6	-1.9	-0.4	-
(전기비연율)			(2.4)	(-1.6)	(6.7)	(-7.3)	-1.6	-
(전년동기비)			(2.3)	(2.5)	(2.9)	(-0.2)	-1.2	-

자료: 일본 내각부

-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설비투자는 0.2% 감소, 2분기 연속 감소했으며 주택투자도 전기비 6.7% 감소
- 실질수출은 전기비 1.3% 증가했으나 투자와 재고 등의 감소를 보전하기에는 역부족
 - 기업들이 해외생산거점으로부터 해외시장에 제품을 직접 공급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크게 늘지 않음
 - 수출에서 수입을 뺀 외수의 성장기여도는 0.1%p
- 여기에 기업들의 생산조정에 따른 재고 감축도 마이너스 성장에 일조
- 이에 따라, 일본정부의 2014년도 GDP 성장률 전망치 1.2%를 달성하려면 4분기와 2015년 1분기에 각각 전기비 3.1%의 성장이 필요한데, 이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그러나 금년 가을 이후 소비세 인상 of 반작용에 의함 감소는 조금씩 줄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일본경제가 이대로 본격적인 후퇴국면에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은 적음
- 미즈호 종합연구소는 4분기 GDP성장률을 연율 4%로 예측, 겨울보너스 증가가 소비를 자극하고 원유가 하락으로

부담이 줄게 되는 중소기업에서도 임금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

■ (광공업생산) 2014.9월, 증가로 반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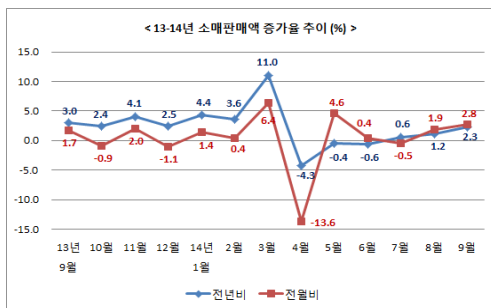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 '14.9월 광공업생산은 전월비 2.9% 증가, 2개월 만에 플러스로 반전
- 금년 4월 소비세 인상 후 대폭 증가한 재고가 5개월 만에 감소하고, 출하도 4.3%로 생산을 상회하는 증가율을 보인 데 따른 것임
- 이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생산의 기초를 약세추이에서 일진일퇴로 상향수정
- 업종별로는 15개 업종 중 13개 업종이 증가
 - 전자부품·디바이스와 수송기계의 생산이 각각 5.8% 및 4.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화학공업은 0.1% 감소

- 당분간은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의 반작용 영향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진일퇴를 거듭할 전망
- 제조공업생산 예측조사에 의하면, 10월에는 전월비 0.1% 감소, 11월은 1.0% 증가 예상

■ (소 비) 완만한 회복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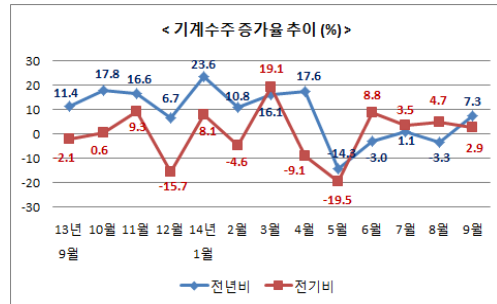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 '14.9월 소비는 소매업 판매액면에서는 전월비로는 2.8% 증가,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
- 소비의 수요측 통계인 실질소비지출도 전월비 1.5% 증가
- 수요측 통계와 공급측 통계(광공업출하지수 등)를 합성한 소비종합지수는 전월비 0.5% 증가
- 기온저하에 따른 의류의 소비가 호조를 보인 외에, 자동차와 연료의 판매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
- 2015년 4월로 예정된 경자동차에 대한 세율인상을 앞둔 신차의 가수요와 고용·소득 환경의 개선으로 앞으로도 완만한 회복이 예상
- 다만 소비자마인드의 저하 기미는 가시

지 않고 있음

■ (설비투자) 기업수익의 호조로 회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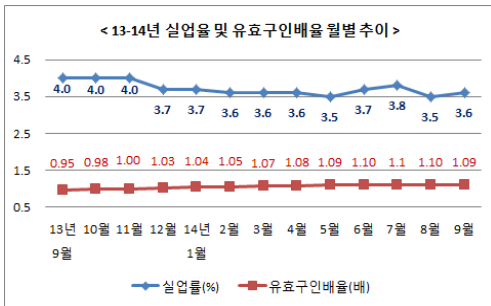


자료 : 경제산업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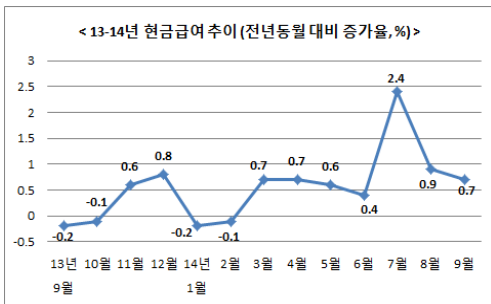
- '14.9월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기계수주액(선박, 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은 전월비 2.9% 증가, 4개월 연속 증가
- 설비과잉감이 일부 제조업에서 남아있기는 하나 기업들의 설비갱신을 위한 투자욕이 살아나고 있는 점이 주된 요인
- 업종별로는 제조업은 11% 증가한 가운데, 원자력 발전설비, 반도체제조장치, 원동기 등의 발주가 크게 증가
- 비제조업은 1.6% 증가한 가운데, 통신 정보서비스업과 도소매업으로부터의 컴퓨터 발주가 증가
- 일본은행 단칸(2014년 9월)에 의하면 2014년도 설비투자계획은 전 산업에서 3년 연속 증가하는 가운데, 제조업은 4년 연속 증가, 비제조업에서는 3년 연속 증가 예상
- 2분기와 3분기에 연속 설비투자가 감소했으나, 최근 소비세 인상의 반작용 영향이 줄어들면서 생산과 기업수익이 회

복되고 있고 여기에 엔저도 가세함에 따라 앞으로 설비투자는 회복될 전망

■ (고 용) 전반적으로 안정세 유지



자료 : 후생노동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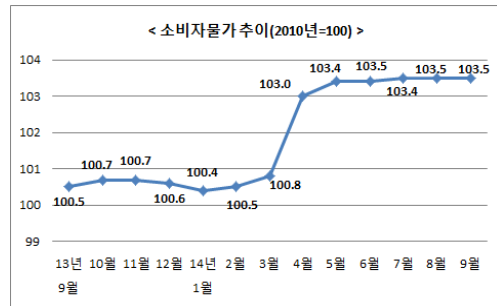


자료 : 후생노동성

- '14년 9월 완전실업률은 3.6%로 8월보다 0.1%p 상승
- 완전실업자 수는 2개월 만에 증가
- 취업자 수는 6,403만 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43만 명 증가한 가운데, 여성취업자는 2,757만 명으로 과거 최고 수준
- 9월의 유효구인배율은 1.09배로 8월보다 0.1%p 저하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일손부족현상이 지속
- 일본은행 단칸(9월 조사)에 의하면, 기업들의 고용부족감이 높아지고 있어, 앞

- 임금은 현금급여 총액이 전년동월대비 0.7% 증가했지만, 근로자세대의 실질수입은 소비세 인상과 물가상승으로 전년 동월비 6% 감소

■ (소비자물가) 2개월 연속 제자리걸음



자료 : 총무성

- '14.9월 소비자물가상승률(생선·식품을 제외한 코어 CPI)은 전월 대비 0.0%로 전월과 같은 수준
- 전년 동월 대비로는 3.0% 상승, 16개월 연속 상승
- 원유가 하락이 전년동월비 소비자물가 상승율을 8월보다 0.1%p 떨어트린 주된 요인
-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큰 품목으로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식료 4.2%, TV 9.9%, 숙박료 8.4% 등임
- 소비세 인상에 따른 물가상승효과를 2.0%를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0%
- 앞으로 소비자물가는 현재 정도의 상승폭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물가상승률도 전체로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음

- 엔저로 인해 물가상승 압력이 커지는 한편, 원유가 하락으로 인한 물가하락 압력이 구체화될 전망

2. 계속되는 무역적자 행진

■ (중 합) '14.10월에도 0.7조 엔의 무역적자로 28개월 연속 적자

- '14.10월에도 무역수지는 0.7조 엔의 적자로 전월비 적자폭은 줄었지만 28개월 연속 적자 행진
- 對중국 무역적자는 전월의 6,703억 엔에서 5,868억 엔으로 크게 축소된 한편, 對미국 무역흑자는 전월의 5,409억 엔에서 6,145억 엔으로 확대

■ (수 출) 엔저효과로 수출물량 2년 반 만의 최고 수준

- '14.10월 수출은 9월보다 4.7% 증가한 6.7조 엔
- 수출 물량도 전월보다 2.2% 증가, 약 2년 반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
- 이는 엔저의 가속화로 달러표시 기업들

이 수출가격을 인하하기 시작한 결과로서 조금씩 엔저의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

- 10월의 일본은행 수출물가지수는(계약통화기준, 2010년 100)전년동월비 1.7% 하락한 97.5로 200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품목별로는 전기·전자기기가 3.9% 하락한 외에 금속·동제품도 3.3% 하락
- 수출액 기준으로 5대 수출 품목은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전자부품, 자동차 부품, 원동기 순이며, 전월과 비교하여 과학광학기기 대신에 원동기가 포함
- 5대 수출품목 중 자동차와 철강을 제외하고는 3개 품목이 전월보다 수출이 증가한 가운데, 원동기의 수출증가율이 11.7%로 가장 높으며, 이어 자동차부품(7.2%), 반도체 등 전자부품(2.3%) 순임
- 주요 수출 지역·국가에 대한 수출은 모두 증가한 가운데, 수출 순위 6위인 대만으로의 수출이 13.3%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임
- 이어 미국, 중국, ASEAN, EU, 한국 순으로 대만의 뒤를 잇고 있음

〈 2014년 10월 일본의 수출입 (단위: 조엔, %) 〉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수 출	6.4	6.9	10.3	6.7	9.6	4.7	60.0	3.9
수 입	7.3	6.2	7.4	7.4	2.7	1.4	71.2	6.9
무역수지	-0.9	1.6	0.8	-0.7	-35.5	-22.2	-12.2	37.6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 (단위: 억 엔, %) 〉

순위	품목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자동차	10,238	7.0	32.7	10,151	6.2	-0.8	89,537	4.7
2	철강	3,480	14.0	9.1	3,463	11.8	-0.5	32,654	3.5
3	반도체 등 전자부품	3,330	7.9	2.1	3,408	8.7	2.3	30,065	1.4
4	자동차부품	3,011	1.5	13.9	3,228	3.0	7.2	28,693	-0.3
5	원동기	2,046	-1.5	8.7	2,285	-0.3	11.7	20,7	-1.0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출 (단위: 억 엔, %) 〉

순위	국가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미국	11,582	4.4	13.3	12,683	8.9	9.5	110,421	3.5
2	중국	11,544	8.8	3.4	12,296	7.2	6.5	109,652	6.8
3	ASEAN	9,634	6.9	8.2	10,238	10.8	6.3	90,973	0.9
4	EU	6,497	0.7	8.9	6,817	5.4	4.9	62,757	9.6
5	한국	4,712	3.2	9.4	4,779	3.0	1.4	44,750	-3.1
6	대만	3,384	7.5	-0.3	3,834	16.2	13.3	34,881	4.2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 입) 엔저에 따른 수입액 증가

- '14.10월의 수입은 9월보다 1.4% 증가한 7.4조 엔
- 수입 물량은 전월 대비 2.1% 감소

- 수입물량이 감소된 데는 엔저에 따른 수입가격 상승의 영향이 큼
- 다만 원유의 수입물량은 전력수요 감소로 전월비 8.8% 감소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단위: 억 엔, %) 〉

순위	품목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기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1	원유	11,325	-2.2	-0.7	10,784	-10.8	-4.8	117,925	1.8
2	액화천연가스	6,158	21.0	3.7	6,198	6.1	0.6	64,038	10.6
3	통신기	3,800	11.6	209.7	3,475	29.6	-8.6	22,037	3.3
4	의류·동부속품	3,714	2.4	21.3	3,375	-2.8	-9.1	27,279	-0.3
5	반도체 등 전자부품	2,579	6.9	14.3	2,539	8.5	-1.6	23,771	17.6

자료 : 일본 재무성

- 수입액 기준으로 5대 수입 품목은 원유, 액화천연가스, 통신기, 의류 및 동 부속품, 반도체 등 전자부품 순으로 전월에 비하여 변동이 없는 가운데, 액화천연가스 등 수입이 감소
- 의류 및 동 부속품의 감소폭이 9.1%로

- 가장 크며, 이어 통신기, 원유, 반도체 등 전자부품의 순으로 감소폭이 큼
- 주요 수입대상 지역·국가의 수입은 중국과 ASEAN, 호주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감소한 반면, 미국과 EU,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

〈 2014년 10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수입 (단위: 억 엔,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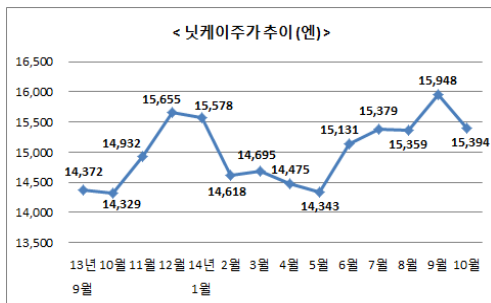
순위	국가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전년동기비)
1	중국	18,240	8.3	35.1	18,164	9.6	-0.4	157,060	9.2
2	ASEAN	10,126	10.8	8.9	10,061	-1.6	-0.6	100,936	6.5
3	EU	6,988	4.2	10.8	6,997	4.9	0.1	67,864	8.0
4	미국	6,175	6.9	-3.1	6,538	11.0	5.9	62,343	10.9
5	호주	4,197	-1.1	0.6	4,076	-0.6	-2.9	42,168	1.9
8	한국	2,867	5.4	9.4	3,062	-7.0	6.8	29,150	1.7

자료 : 일본 재무성

3. 엔저 가속, 고주가

■ (주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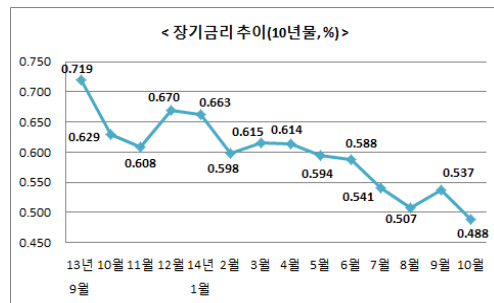
- '14.10월 평균 주가는 투자가들의 리스크 회피 경향 등으로 전월보다 3.5% 하락한 15,394엔
- 11월 들어서는 일본은행의 추가 금융완화와 엔저영향 등으로 11월 21일 기준으로 17,358엔대까지 상승



자료 : 일본경제신문

■ (금 리)

- '14.10월 평균 10년물 장기국채금리는 미국의 장기금리 하락 등을 배경으로 전월보다 9.3% 하락한 0.488%
- 11월 들어서는 일본의 주가상승과 엔저의 영향 등으로 0.5%대까지 상승한 후, 11월 21일 기준으로는 0.455%로 다시 하락



자료 : 일본상호증권

■ (통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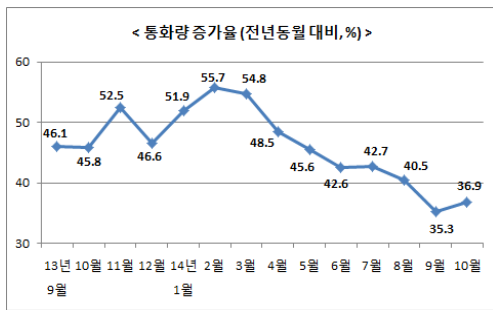
- '14.10월 머니터리베이스(평잔)기준, 통화량증가율은 일본은행의 자산매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년 동월 대비 36.9%

■ (환 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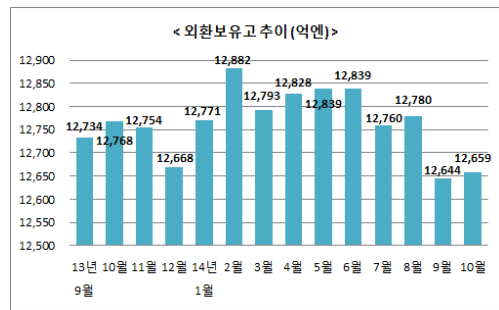
- '14.10월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평균치는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일본의 금융완화 확대, 미국의 금융완화 중단)

등을 반영하여 9월보다 0.9% 상승한 108.1엔(엔저)

- 11월 들어서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에 의한 주식투자비중의 상향조정 등으로 117엔대까지 상승, 11월 21일 기준으로 118.09엔
- 2014년부터 102엔대를 유지하던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미일간 금융정책의 차이, 일본 소비세 인상 등으로 인한 일본 경기의 침체 및 무역적자 계속 등으로 엔저 기조가 유지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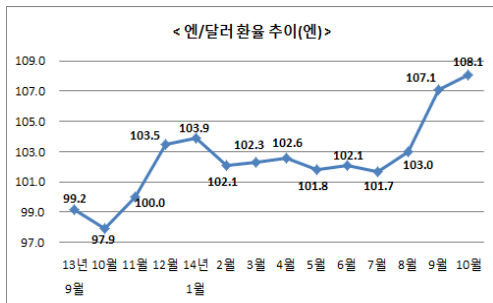


자료 : 일본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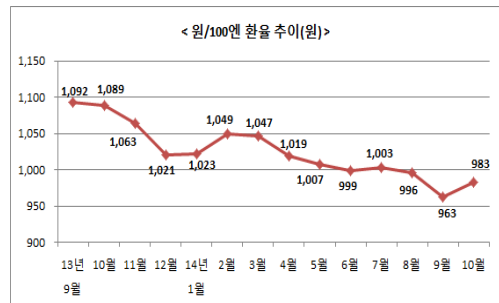


자료 : 재무성

- '14.10월 엔화의 대 원화 환율 평균치는 100엔당 983원으로 9월의 962원엔 비해 2.2% 엔고·원저



자료 : 일본은행



자료 : 한국은행

4. 해외직접투자 증가로 반전

■ (동향)

- '14.9월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6,907억 엔으로 전월대비 8.1% 증가
-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투자가 큰 폭의 증가를 보인데 이어, 아시아 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도 52.5% 증가
 -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26.9% 증가
 - 한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12.7% 증가

- 반면, 유럽 지역과 북미지역에 대한 직접투자는 각각 52.1% 및 45.1% 감소
 -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는 40.5% 감소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 최근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특징은 3가지로 집약
 - 첫째, M&A형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 '13.4월~'14.3월 기간 중 521건으로 최고치 기록

〈 일본의 해외직접투자 동향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	2014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금 액		131,946	6,096	7,356	6,757	7,828	6,392	6,907
증가율	전기비	34.9	-17.4	20.7	-8.1	15.9	-18.3	8.1
	전년동기비	34.9	-59.4	-18.4	-21.4	-79.0	20.2	54.8

자료 : 일본 재무성

〈 2014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국가별 해외직접투자 (국제수지 기준, 억 엔, %) 〉

	2013년	2014.8월				2014.9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대세계	131,946	6,392	-18.3	20.2	6,907	8.1	54.8	
아시아	39,294	2,428	-13.4	25.2	3,702	52.5	100.0	
중 국	8,855	513	11.8	0.0	651	26.9	119.2	
한 국	3,209	267	-40.4	-31.0	301	12.7	126.3	
북 미	45,698	2,136	26.0	15.6	1,172	-45.1	-5.9	
미 국	42,933	1,835	18.4	5.4	1,092	-40.5	2.2	
중남미	9,902	993	341.3	49.5	1,273	25.2	95.8	
유 럽	31,567	789	-70.4	143.5	378	-52.1	147.1	
대양주	5,895	-36	-	-	174	-	-70.1	
중동	-92	26	-59.4	73.3	101	288.5	405.0	
아프리카	504	55	-74.1	120.0	106	92.7	387.9	

자료 : 일본 재무성

- 일본기업의 해외기업 M&A는 자원 확보형 투자로 2011년 3월 동일본대 지진 이후 원전 가동 중단을 계기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원확보형 투자 진출이 확대
- 둘째, 엔저에도 불구하고, 일본기업의 생산거점 이전이 수반되는 해외직접투자가 증가
 - 엔저에도 해외로 생산거점 이전이 증가하는 이유는 내수시장의 한계와 생산단가 저하를 통한 경쟁력 확보, 현지시장 선점을 통한 시장 확대 등 때문임
- 셋째, 일본기업들의 직접투자·생산거점이 소비지역에 가까운 지역으로 이전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수출이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로 대체
 - 대미 수출 승용차의 경우, 생산거점이 일본으로부터 멕시코로 이점됨에 따라 일본으로부터의 대미수출이 멕시코 현지기업으로부터의 대미수출로 대체
 - 엔저가 되더라도 현지생산거점으로부터의 수출이 일본으로부터의 수출로 역 대체되기 어려움

III. 일본의 주요 정책

1.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

- ▷ 일본은행이 10월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융완화를 결정하는데, 이어 11월 18일에는 아베총리가 2015년 10월

로 예정된 소비세 재인상을 연기

■ 배경

- 일본은행은 2015년도까지 물가상승율을 2%로 높이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는데, 2014년 9월 소비자물가지수(생선·식품·소비세 인상 영향 제외)가 전년동월비 1.0%로 기대에 못 미치고 더욱이 5월 이후는 상승률이 둔화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장기간 디플레이션이 계속된 일본은 미국과 같이 예상물가상승률이 2%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하면서, 이번 정책으로 물가목표의 조기달성을 보다 확실히 할 것임을 강조
- 일본의 GDP성장률이 2014년 2분기의 -7.3%에 이어 3분기에도 -1.6%의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소비세 인상에만 따른 경기하강효과가 예상외로 장기화 조짐을 보임

■ 추가 금융완화

<주요 내용>

- 2013년 4월 도입한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확충, 금융정책의 목표로 하고 있는 자금공급량을 이제까지의 년 60조엔~70조 엔에서 80조 엔으로 늘림
- 자금공급량은 내년 말에는 355조 엔으로 GDP의 70%이상까지 늘릴 전망
- 장기국채의 매입액도 연간 50조에서 80조 엔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매입 국채상환기간(평균잔존기간)을 7년 정도에서 7~10년 정도로 연장, 장기금리하락을 촉진함

- 로써 설비투자과 주택구입을 지원
- 주식과 연동된 주가지수연동향투자신탁(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의 구입도 이제까지의 3배로 늘림

<영향과 전망>

-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투자와 소비를 자극, 경제 전체를 성장시키겠다면서 추가완화책의 효과를 역설
- 일각에서는 대출금리가 가일층 하락, 금융기관간 금리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추가 금융완화의 영향을 관측
 - 최근 장기금리의 지표인 10년물 국채금리는 0.435%까지 하락, 2013년 4월 금융완화직후 일시적으로 기록한 0.315%를 제외하면 0.4%대의 장기금리는 과거 최저수준임
 - 메가뱅크의 주택론금리(10년물)은 1% 전반으로 과거 최저수준이나, 추가금융완화로 저금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 소비세 인상 이후 일본 주택시장의 침체로 수요환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차입금리 하락으로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음
- 주가지수연동향투자신탁(ETF)와 부동산투자신탁(REIT)등의 리스크자산의 구입액 확대도 주가와 부동산가격의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자산을 보유하는 기업과 가계의 심리가 개선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임
- 구로다 총재는 환율에 영향을 미칠 생각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으나, 자금공급 확대에 의한 가일층의 엔저 촉진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
 - 10월 29일 미국 FRB가 양적완화 종료를 결정한 상황에서 대규모 완화를 계속하기로 한 일본은행과의 방향성 차이도 선명해짐에 따라 외환시장에서는 엔저·달러고가 진행, 수출기업의 채산성을 높이고 있음
- 그러나 추가완화책이 어느 정도나 경기와 물가를 끌어올리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 이제까지의 물가상승은 엔저에 의해 수입가격이 상승한 영향이 크고 현재는 원유가 하락으로 물가상승율이 둔화
 - 금리하락으로 장래에 대한 불안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가계와 기업들이 그렇게 쉽게는 소비와 투자를 늘리지 못할 것임
-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금융완화로 개인소비와 기업투자가 늘어나 그것이 물가에 반영되어 임금 등도 상승하는 선순환임
 - 그러나 그동안 임금상승 등이 늦어지고 있는 마당에, 가일층의 엔저는 기업과 가계에는 코스트 상승이라고 하는 부작용도 따름
-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본은행의 2% 목표달성에 대한 장벽이 높다는 목소리도 있음
- 더욱이 일본은행의 국채구입이 일본정부의 적자보전책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방만 재정 우려에 따른 국채가격의 하락 리스크도 있음

■ 소비세 재인상 연기

- 아베 총리가 11월 18일 내년 10월로 예정된 소비세 재인상을 2016년 4월로 연기

- 이에 대한 신임을 묻기 위해 11월 21일 중의원을 해산하고 12월 14일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함
- 소비세를 재인상하는 경우 그렇지 않아도 1차 소비세 인상의 경기하강 효과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는 마당에, 소비세를 재인상하는 경우 소비가 더욱 감소하고 경기가 악화되어 디플레이션 탈출도 위험하게 된다는 것이 소비세 재인상 연기의 이유임
- 아베 총리는 조만간 경기부양책과 함께, 기업들에게 법인세를 내려주고 대신 법인세부담 절감분을 임금인상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디플레이션 심리 불식에 주력하겠다고 함

■ 시사점

- 일본은행이 2013년 4월 양적·질적 금융완화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추가완화에 들어갔는데, 이는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부양이 주춤함에 따라 완화책을 반복함으로써 시장의 장래기대에 변화를 주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음
- 리스크자산의 구입확대로 주식과 부동산 등의 자산가격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도 있음
- 이번 추가 금융완화를 둘러싸고 일본은행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림
- 정책위원 9명중 찬성이 5명, 반대가 4명으로 근소한 차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임
- 일부 위원들은 추가완화가 경기나 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이 확실치 않다고 하는 등 신중한 의견도 적지 않았음

- 따라서 일본은행은 추가 이차원의 금융완화를 단행하기는 했으나 효과와 부작용을 점검하여 조정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 소비세 재인상 연기와 관련해서는, 당초 아베노믹스의 목적은 금융완화와 재정지출확대로 시간을 버는 동안에 성장전략을 추진하여 성장력을 키우는 데 있음
- 그러나 중세여부를 판단할 때마다 경기동향 등에 좌우되고 혼란을 거듭해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는 말로 일본경제의 구조적인 저성장에 맞설 성장전략의 필요성을 절감할 것임
- 한편, 이번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 연기는 우리 경제에 플러스영향과 마이너스 영향이 모두 예상됨
- 마이너스영향은 추가 금융완화에 따른 엔저의 가속화가 대일수출 및 일본과의 대외수출경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플러스영향은 추가 금융완화와 소비세 재인상과 함께 경기부양책과 성장정책강화를 통하여 일본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경우 대일 수출과 한일산업협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음

IV. 한일 경제관계 분석

1. 10월 대일 수입감소로 대일 무역적자 축소

■ (중 합)

- '14.10월 대일 무역적자는 1,704백만 달러로, 9월에 비해 257백만 달러 축소
- 대일 수출은 2,920백만 달러, 대일 수입은 4,624백만 달러

〈 2014년 10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단위: 백만 달러, %) 〉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대일수출	2,735	-6.2	7.8	2,920	-2.2	6.8	27,339	-4.5
대일수입	4,696	-4.2	11.2	4,624	-9.2	-1.5	44,963	-10.9
무역수지	-1,961	-24	276	-1,704	-404	-257	-17,624	-7,743

주) 수출, 수입의 증감은 %, 무역수지의 증감은 백만달러
 자료 : 한국무역통계

■ (대일 수출)

- '14.10월의 대일 수출은 9월에 비하여 6.8% 증가
- 이는 동 기간 중 한국의 총수출증가율 8.5%에 비하면 저조한 편이나 일본의 수입증가율 1.4%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 엔저하에서도 일본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음을 시사

- '14.10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광물성연료, 정밀화학제품, 금속광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서 대일 수출이 증가
- 산업용전자제품이 57.6%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이어 수송기계(33.7%)와 농산물(20.5%)이 20%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대일 수출증가율(%)		총수출증가율(%)		일본의 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10월	-2.2	6.8	2.3	8.5	2.7	1.4
2014.1-10월	-4.5	-	2.8	-	6.9	-

〈 2014년 10월 대일 수출 10대 품목 (단위: 백만 달러, %) 〉

순위	품목명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2,735	-6.2	7.8	2,920	-2.2	6.8	27,339	-4.5
1	광물성연료	646	-24.9	9.9	570	8.9	-11.8	5,681	-17.9
2	철강제품	322	11.6	2.5	335	-6.3	4.0	3,422	15.6
3	산업용전자제품	198	1.1	20.7	312	-23.3	57.6	2,322	-14.2
4	전자부품	188	-29.1	3.9	197	-20.2	4.8	2,001	-15.8
5	석유화학제품	132	12.8	-3.0	152	19.4	15.2	1,400	-8.9
6	수송기계	98	6.2	6.5	131	28.9	33.7	1,082	12.7
7	정밀화학제품	128	15.7	15.3	126	-1.8	-1.6	1,262	4.2
8	금속광물	113	-13.1	16.5	102	-19.0	-9.7	929	-16.1
9	기계요소공구·금형	87	12.3	0	100	19.3	14.9	952	18.0
10	농산물	83	2.9	-5.7	100	3.7	20.5	917	5.8

자료 : 한국무역협회

■ (대일 수입)

- '14.10월의 대일 수입은 9월에 비하여 1.5% 감소
- 대일 수출은 증가한 반면, 대일 수입이 축소된 것이 대일 무역적자 축소요인으로 작용
- 동 기간 중 총수입감소율은 전월비 0.2%로 대일 수입감소율을 하회
- '14.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의 변화를 전월대비 증가율로 보면 철강제품, 석

유화학제품, 플라스틱제품, 산업기계 등은 감소한 반면, 나머지 품목은 증가

- 대일 수입감소 폭 중 석유화학제품의 감소폭이 12.4%로 가장 크며, 이어 산업기계, 철강제품, 플라스틱 순
- 대일 수입증가 품목에서는 산업용전자제품의 증가폭이 8.3%로 가장 크며, 이어 정밀기계, 기초산업기계, 수송기계, 정밀화학제품, 전자부품 순

	대일 수입증가율(%)		총수입증가율(%)	
	전년동기비	전기비	전년동기비	전기비
2014. 10월	-9.2	-1.5	-3.0	-0.2
2014. 1-10월	-10.9	-	2.9	-

〈 2014년 10월 대일 수입 10대 품목 (단위: 백만달러, %) 〉

순위	품목명	2014.9월			2014.10월			2014.1-10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년동기비
	총계	4,696	-4.2	11.2	4,624	-9.2	-1.5	44,963	-10.9
1	철강제품	709	6.9	6.1	688	-0.7	-3.0	7,058	-7.6
2	전자부품	618	-8.9	14.0	624	-11.3	1.0	5,242	-13.1
3	석유화학제품	605	17.6	18.2	530	10.9	-12.4	5,116	-8.9
4	정밀화학제품	354	-0.3	8.6	360	-3.8	1.7	3,606	-3.4
5	기초산업기계	295	-36.3	5.4	314	-44.9	6.4	2,940	-28.1
6	플라스틱제품	241	-9.9	5.2	239	-13.5	-0.8	2,410	-13.4
7	산업용전자제품	218	-11.2	10.7	236	-13.0	8.3	2,385	2.3
8	수송기계	217	22.2	7.4	222	1.7	2.3	2,089	6.3
9	산업기계	199	6.3	8.2	191	0.9	-4.0	1,998	-1.8
10	정밀기계	173	-18.7	9.5	187	-23.5	8.1	1,989	-1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2. 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 큰 폭 증가

■ (동향) : '14.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 증가로 반전

- '14.3분기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는 489백만 달러로 전기 대비 21.3% 증가
- 동 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14.9%의 감소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는 10% 감소

- 한편, 2014년 1~3분기 일본의 대한투자누계는 1,638백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6% 감소
- 이 역시 동기간 중 전체 외국인투자증가율이 37.9%의 증가를 보인 것과는 대조적
- 건수로도 24.1% 감소

〈 일본의 대한 직접투자 실적(신고기준, 단위: 건, 백만 달러, %) 〉

	2013년		2014.1분기		2014.2분기		2014.3분기		2014.1-3분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일본의 대한투자	447 (-17.7)	2,690 (-40.8)	99 (-11.6)	746 (2.3)	80 (-19.2)	403 (-46.0)	72 (-10.0)	489 (21.3)	251 (-24.1)	1,638 (-16.6)
전체 외국인투자	2,607 (-9.1)	14,548 (-10.7)	571 (-15.3)	5,062 (33.1)	583 (2.1)	5,272 (4.1)	563 (-3.4)	4,484 (-14.9)	1,717 (-11.2)	14,818 (37.9)

주) ()내는 전기 대비 증가율 2014.1-3분기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 산업부, 외국인직접투자통계

■ (최근 한·일 기업간 산업협력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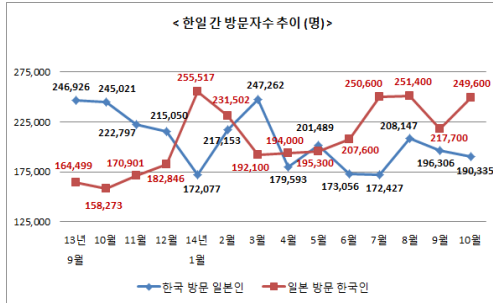
- 일본의 친환경재생산업체(RPM)인 (주) 에코마트 산업이 광양항 배후부지에 100억원을 투자하여 물류창고 및 기반 처리 시설을 설치할 계획(2014.9.25.)
- NTT도코모가 한국기업 등과 공동으로 번역소프트 개발기로(2014.9.29.)
 - 공동출자회사인 미라이번역(자본금 9억 9,000만원)을 10월에 설립, 도코모가 51%, 한국의 번역소프트개발회사인 시스템인터내셔널이 30%, 음성인식시스템개발 휴트랙이 10% 출자
- 일본의 대표적인 회계 소프트웨어 기업 MJS가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업체인 웹

케시에 증자 및 주식 매입 방식으로 25억원을 투자(2014.10.24.)

■ (시사점)

- 한일 관계의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추가 금융완화로 엔저기조가 유지될 전망
- 한일 경제교류를 둘러싼 이 같은 환경 변화는 우리의 수출은 물론, 일본의 대한투자에도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점에서, 다각적인 대응과 함께 보다 강도 높고 차별화된 대일 투자유치노력이 요구됨

3. 2개월 연속 방한 일본인 수 감소, 방일 한국인 수는 증가



출처 : 한국관광공사, 일본정부관광국(JN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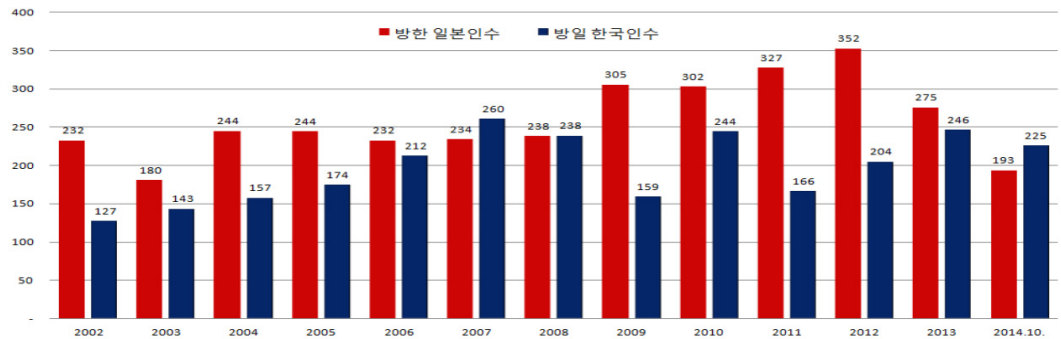
- (일본인 방한) '14.9월에 이어 10월에도 감소
 - '14.10월 일본인 입국자수는 190,335명으로 9월보다 3% 감소
- (한국인 방일) '14.10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수는 크게 증가
 - '14.10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수는 249,600명으로 9월보다 14.7% 증가
 -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방일 프로모션, 엔저 등이 한국인의 방일객 증가에 기여

한일 교역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수출입 실적(02~14.10)/(단위 : 억불)



구분	총수출 (A)	총수입 (B)	총교역액 (C=A+B)	대일수출 (D)	대일수입 (E)	총대일교역 (F=D+E)	대일수출비중 (G=D/A)	대일수입비중 (H=E/B)	대일무역수지 (I=D-E)
2002	1,625	1,521	3,146	151	299	450	9.3%	19.6%	-148
2003	1,938	1,788	3,726	173	363	536	8.9%	20.3%	-190
2004	2,538	2,245	4,783	217	461	678	8.5%	20.6%	-244
2005	2,844	2,612	5,456	240	484	724	8.4%	18.5%	-244
2006	3,255	3,094	6,348	265	519	785	8.2%	16.8%	-254
2007	3,715	3,568	7,283	264	563	826	7.1%	15.8%	-299
2008	4,220	4,353	8,573	283	610	891	6.7%	14.0%	-327
2009	3,635	3,231	6,866	218	494	712	6.0%	15.3%	-276
2010	4,664	4,252	8,916	282	643	925	6.4%	15.1%	-361
2011	5,552	5,244	10,796	397	683	1,080	7.2%	13.0%	-286
2012	5,479	5,196	10,675	388	644	1,032	7.1%	12.4%	-256
2013	5,596	5,156	10,752	347	600	947	6.2%	11.6%	-253
2014.10	4,767	4,405	9,172	273	450	723	5.7%	10.2%	-177

한일 인적교류 현황 : 對 일본 연도별 출입국 실적(02~14.10)/(단위 : 만명)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방한 일본인수	232.1	180.3	244.3	244.0	232.0	221.6	235.8	303.2	300.4	327.0	351.8	274.7	193.0
방일 한국인수	126.6	142.7	156.9	173.9	211.7	260.1	238.3	158.7	241.5	165.8	204.4	245.6	224.5
계	358.7	323.0	401.2	417.9	443.7	481.7	474.1	461.9	541.9	492.8	556.2	520.3	417.5

(출처) 한국무역협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일본정부관광국(JNTO)

회원가입안내

1. 개요

한일경제협회(www.kje.or.kr)는 자매기관인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www.kjc.or.kr)과 함께 한일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시키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정립에 기여해 오고 있으며, 한일 양국 경제인의 교류 활동을 통해 상호이해와 상호신뢰 구축은 물론 활발한 인적교류 등 민간에 의한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2. 회원 자격

우리협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고 한일 양국의 경제적 이해와 협조 및 친선을 위하여 유대를 갖고 있거나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국내외 개인, 법인 및 단체

3. 회원가입 및 회비

■ 회원가입 : 소정양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가입회비와 연간회비를 납부하여야 함

■ 회비구분

구 분	전년도 매출액기준	입회비	년회비
일반회원사	50억 이상	10만원	80만원
	50억 미만	10만원	20만원

■ 입금계좌 : 우리은행 424-04-104432 한일경제협회

4. 중점사업

- 한일경제인회의 사업(년 1회)
- 한일신산업무역회의(년 1회)
- 한일 및 한중일 지역간 교류협력 사업(한·큐슈, 한·호쿠리쿠, 한·황해경제교류)
- 한일청소년(고교생교류캠프)교류 사업
- 기타 한일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사업(한일통상포럼, 업종별 교류회 등)
- 회원사 간담회(주일대사초청간담회, SJC와의 간담회, 친선교류활동 등)

5. 회원사 특전

- 협회주최 및 자매기관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연구조사, 보고서 제공
- 협회 소식지 및 일본정보[지식리포트] 제공
- 협회 보유자료 열람
- 일본기업 소개·비즈니스 정보·신기술동향 등의 일본기업정보 제공 (수시)
- 비즈니스 상담회, 기술지도, 일본연수 사업 참여

6. 문의처

(우)135-8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31길 18-4(논현동) 한일재단B/D 4층
김정호 부장 (TEL: 02-3014-9886 E-mail : jhkim@kje.or.kr FAX : 02-3014-9899)

회원가입신청서

회사(기관)명			
대 표 자	(한글)	(한문)	
	(직위)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		
T E L	(대표)	(비서실)	
F A X	(대표)	(비서실)	
E - mail	(대표)	(비서실)	
U R L	http://	창 립 일	년 월 일
자산 총액	억원	자 본 금	억원
전년도매출액	억원	종업원수	명
주생산품			
업 종 ※ 해당되는 업종 앞에 하나만 √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업, 광업	기계	운수창고	
섬유, 의복	전기전자	통신업	
종이, 목재, 출판	전기장비	금융업(은행, 증권, 보험)	
화학	의료정밀	지주회사	
의약품	운수장비	법무, 회계	
고무, 플라스틱	전기가스	기타 서비스업	
비금속광물	건설업	경제단체, 공공기관 등	
철강, 금속	유통업	그 외 업종()	

<담당 관리부서>

부 서 명		TEL	
담 당 자	(성명)	FAX	
	(직위)	E-mail	

본인은 귀 협회의 설립취지와 사업에 동의하며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회사명(단체명) :

대표자 : ㉠

(사)한 일 경 제 협 회 귀 중

※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어 E-mail : jhkim@kje.or.kr 송부 후, 첨부서류와 함께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35-821) 서울시 강남구 논현2동 112-15 한일재단빌딩 4층 (FAX : 02-3014-9899)